

Session 1.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점과 대안

발제 : 김 복 문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명예교수(우리말 英語式表記學會 회장)

序 論

열린우리당이 선거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패를 당한 끝에 와해직전 위기까지 가서 겨우 수습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그 같은 참패를 당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됨에 우리 국민 너나할 것 없이 정부의 실책에 실망, 짜증을 느낀 나머지 죽기 전에 발악이라도 하고 죽자는 심정으로 한나라 당에게 표를 던져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근태 당의장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릴 도리밖에 없고, 그것은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서민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영어가 국제어로 통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영어사용 세계인이 이해 못하는, 국제경쟁력이 전혀 없는(0%) 현행 문광부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때문이다. 이 표기법은 1986 아세안 및 1988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1984년에 그 용도가 폐기되었던 舊 문교부안(일명 한글학회안)을 문광부고시 2000-8로 그 이름만 바꿔 재생시킨 것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역중의 주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65억 세계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한자사용 문화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글전용 정책 때문에 길거리 안내 표지나 상점의 취급상품을 찾지 못해 기분만 잡쳐 우리나라를 다시 안 찾게 만든 결과 대외경제 의존도가 70~80%나 되는 우리 경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열린우리당 못지않게 한나라당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나 그 같은 근본적인 제도상의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국어의 영문 표기나 한글전용이 설마 나라까지 망치겠느냐?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경제가 망할 도리밖에 없다. 현행 우리말 로마자 표기법이 영어식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틀린 것이고, 게다가 길거리 상점 등의 취급상품 표지판 역시 모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타국 대비 그 점수는 2005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10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人. 地名의 표기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불편을 겪은 외국

인은 그 순간순간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06년도 상반기의 경상수지는 IMF가 있는 지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경 2006.7.28)

No.	날짜	신문명	기사제목	비고																																								
15	2005.09.20	조선일보	<p>한국 이대론 '동북아 금융허브' 안된다.</p> <p>주한 130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외국기업의 각국 경쟁력 대비 한국이 가장 약점이 많으며, “한국 이대론 동북아 금융허브 안된다” 제하에서</p> <p>※ 외국기업인이 ‘경쟁력 있다’ 고 응답한 비율</p> <p>한국이 꼴찌한 항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한국</th> <th>홍콩</th> <th>싱가포르</th> <th>상하이</th> </tr> </thead> <tbody> <tr> <td>경제활동규제</td> <td>2.0</td> <td>40.9</td> <td>40.9</td> <td>3.1</td> </tr> <tr> <td>노사·고용관계</td> <td>2.0</td> <td>7.5</td> <td>7.5</td> <td>20.4</td> </tr> <tr> <td>세제인센티브</td> <td>0.0</td> <td>18.3</td> <td>14.0</td> <td>17.3</td> </tr> <tr> <td>외국인 거주환경</td> <td>3.0</td> <td>21.5</td> <td>26.9</td> <td>4.1</td> </tr> <tr> <td>영어구사능력</td> <td>3.0</td> <td>47.3</td> <td>54.8</td> <td>4.1</td> </tr> <tr> <td>정부지원</td> <td>0.0</td> <td>12.9</td> <td>36.6</td> <td>20.4</td> </tr> <tr> <td>합계</td> <td>10</td> <td>148.4</td> <td>180.7</td> <td>69.4</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경제활동규제	2.0	40.9	40.9	3.1	노사·고용관계	2.0	7.5	7.5	20.4	세제인센티브	0.0	18.3	14.0	17.3	외국인 거주환경	3.0	21.5	26.9	4.1	영어구사능력	3.0	47.3	54.8	4.1	정부지원	0.0	12.9	36.6	20.4	합계	10	148.4	180.7	69.4	
구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경제활동규제	2.0	40.9	40.9	3.1																																								
노사·고용관계	2.0	7.5	7.5	20.4																																								
세제인센티브	0.0	18.3	14.0	17.3																																								
외국인 거주환경	3.0	21.5	26.9	4.1																																								
영어구사능력	3.0	47.3	54.8	4.1																																								
정부지원	0.0	12.9	36.6	20.4																																								
합계	10	148.4	180.7	69.4																																								

우리 한글이 그 음가의 다양성과 과학성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 해외파견자들은 한국어가 세계언어중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데, 이는 현행 표기법이 의도한 우리말 소릿값을 의도한 대로 전달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결정적 증거이다.(동아일보, 매일경제 2006.8.14) 그리고 관광, 투자, 수출입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의 존도가 70~80% 나 되는 우리 경제구조하에서는 國內外人間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Session 1

한 장으로 그 내용이 요약된 민족적 정기를 짓밟는, 즉시 폐기시켜야만 할

①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의 경우는 철자에 따라 적는 것을 허용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ㅞ	ㅟ	ㅛ	ㅝ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ㅞ	ㅟ	ㅜ	ㅝ	ㅞ	ㅟ	ㅛ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ㅛ’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ㅑ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등 9개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등 6개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지면관계상 생략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12.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 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표를 통하여 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의 내용과 그 이론적 타당성에 관한 (우리말 영어식로마자 표기학회장 金福文 教授에 의한), 종합평가

번호	母音						번호	子音 (英語 발음기준)							
	한글	문광부 고시 2000-8 표기법	英語 발음 기준	正誤	이태리語 발음기준	正誤		초성(初聲)		종성(終聲)					
								한글	개정시안의 표기	正誤	다음이 모音일때	正誤	다음이 子音이거나 그것으로 끝날때	正誤	
1	ㅏ	A	에이	×	아	○	1	ㄱ	G	○	언급없음	?	K	○	
2	ㅑ	YA	이에이	×	야	○	2	ㅋ	K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3	ㅓ	EO	요	×	에오	×	3	ㄲ	KK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4	ㅕ	YEO	이요	×	예오	×	4	ㄷ	D	○	언급없음	?	T	○	
5	ㅗ	O	오우	×	오	○	5	ㅌ	T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6	ㅛ	YO	요우	×	요	○	6	ㅎ	TT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7	ㅜ	U	유	×	우	○	7	ㅑ	B	○	언급없음	?	P	○	
8	ㅠ	YU	이유	×	유	○	8	ㅓ	P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9	ㅡ	EU	이유	×	에우	×	9	ㅕ	PP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0	ㅣ	I	아이	×	이	○	10	ㅗ	J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1	ㅐ	AE	애	○	아에	×	11	ㅑ	CH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2	ㅒ	YAE	얘	○	야에	×	12	ㅓ	JJ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3	ㅔ	E	이	×	에	○	13	ㅕ	S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4	ㅖ	YE	이이	×	예	○	14	ㅗ	SS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5	ㅘ	OE	오우	×	오에	×	15	ㅑ	H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6	ㅙ	WA	웨이	×	와	○	16	ㅓ	NG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7	ㅛ	WAE	왜	○	와에	×	17	ㅕ	N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18	ㅜ	WO	워우	×	워	○	18	ㅗ	R	○	언급없음	?	L	○	
19	ㅠ	WE	위	×	외	×	19	ㅑ	M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0	ㅡ	WI	와이	×	위	○	20	ㅓ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1	ㅣ	UI	의	○	우이	×	21	ㅕ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2	ㅗ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3	ㅑ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4	ㅓ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5	ㅕ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6	ㅗ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7	ㅑ			언급없음	?	언급없음	?	
							28	ㅓ			언급없음	?	언급없음	?	

※ (正誤) : 한글 모음소리에 대하여 제시된 로마자 표기를, 英語 發音 기준으로 읽을 경우, 21개 母音中 4개만 맞고 17개가 틀리고, 이태리語 發音 기준으로 읽을 경우 21개 母音中 12개만 맞고 9개가 틀려 있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발음기준을 영어로 하던, 이태리어로 하던 출발점부터 잘못 되어 있음을 누구나 단번에 알 수 있게 됨.

※ 母音에 있어 부호사용은 필자의 주장에 따라 없어졌으나,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읽어야 할지를 알 수 없어, 너무 혼돈스럽고 웨(WE-틀린표기) 하나 포함, 음절단위의 중복사용(밑줄 친 부분 해당)이 너무 많아 어느 것을 어떤 것에 해당시켜 읽어야 할 지 그 구분을 할 수 없는데다가, 음가 반영면의 현실괴리가 너무 크며, 게다가 子音 表記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오류(誤謬)가 겹쳐, 한글/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案으로서 국어연구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全的으로 실격·부적합(失格不適合)한 것임. 뿐만 아니라, 그 표기법案은 ISO가 各國에 시달한 지침(指針) 4가지中 부호사용금지라는 한 가지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항목 내용 그 모두를 정면(正面)에서 배치(背馳)하고 있음.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 기본원칙/일람표에 예속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의 일제잔재 미청산 사실 입증

- ▶ 일본어 로마자 표기방식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원칙 훈령식과 그 일람표
 - ① 모든 외국인이 아니고, 영어를 이해하는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 ② 자음의 발음기준은 영어, 모음의 발음기준은 이태리어,
 - ③ 철자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발음방식(전사주의)에 의거 어떤 발음에 해당하는 철자를 찾아내어 그 소리에 맞도록 함.
 - ④ 보통의 교육을 받은 東京 거주인의 발음이 기준.
- ▶ 기본원칙에 발음의 기준이 없는 **문화관광부 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그 내용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의 경우는 **철자에 따라 적는 것을 허용**한다)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あ	い	う	え	お			
아 a	이 i	우 u	에 e	오 o			
か	き	く	け	こ	きゃ	きゅ	きょ
카 ka	키 ki	쿠 ku	케 ke	코 ko	카 kya	큐 kyu	쿄 kyo
さ	し	す	せ	そ	しゃ	しゅ	しょ
사 sa	시 si	스 su	세 se	소 so	샤sya[sha]	슈 [shu]	쇼syo[sho]
た	ち	つ	て	と	ちゃ	ちゅ	ちょ
타 ta	치 [chi]	쓰 [tsu]	테 te	토 to	챠tcha[cha]	츄tyu[chu]	초tyo[cho]
な	に	ぬ	ね	の	にゃ	にゅ	にょ
나 na	니 ni	누 nu	네 ne	노 no	냐 nya	뉴 nyu	뇨 nyo
は	ひ	ふ	へ	ほ	ひゃ	ひゅ	ひょ
하 ha	히 hi	후 hu	헤 he	호 ho	햐 hya	휴 hyu	효 hyo
ま	み	む	め	も	みゃ	みゅ	みょ
마 ma	미 mi	무 mu	메 me	모 mo	먐 mya	뮈 myu	묘 myo
や	(い)	ゆ	(え)	よ			
야 ya	이 (i)	유 yu	에 (e)	요 yo			
ら	り	る	れ	ろ	りゃ	りゅ	りょ
라 ra	리 ri	루 ru	레 re	로 ro	랴 rya	류 ryu	료 ryo
わ	<る>	(う)	<ゑ>	を			
와 wa	이 (i)	우 (u)	에 (e)	오 o			
が	ぎ	ぐ	げ	ご	ぎゃ	ぎゅ	ぎょ
가 ga	기 [gi]	구 gu	게 ge	고 go	갸 gya	큐 gyu	교 gyo
ざ	じ	ず	ぜ	ぞ	じゃ	じゅ	じょ
자 za	지 (zi)	즈 zu	제 ze	조 zo	자 zya[ja]	주 zyu[ju]	조 zyo[jo]
だ	ぢ	づ	で	ど	ぢゃ	ぢゅ	ぢょ
다 da	지 zi	즈 (zu)	데 de	도 do	자 [zya]	주 (zyu)	조 zyo(jo)
ば	び	ぶ	べ	ぼ	びゃ	びゅ	びょ
바 ba	비 bi	부 bu	베 be	보 bo	뵤 bya	뮈 byu	뵤 byo
ぱ	ぴ	ぷ	ぺ	ぽ	ぴゃ	ぴゅ	ぴょ
빠 pa	피 pi	푸 pu	페 pe	포 po	뵤 pya	뮈 pyu	뵤 pyo

* ()는重複, < >는消滅, []는 헤븐식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총 음절수가 112개 밖에 안되는 日帝잔재 표기방식이 따르고 있는 원칙을 너무나 무지몽매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과 동일하게 하여놓고 나머지 총음절수 2,793개에서 112개를 제외한 나머지 2,681개에 대한 우리나라 로마자 표기법의 발음기준은, ①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과 ② 학문의 경우는 철자에 따라 적는 것을 허용한다 하는 단서조항뿐으로 로마자로 표기된 우리말을 어느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읽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그러나 조사결과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에 있어 모자음 소리에 대한 발음기준을 국제어인 영어로 단일화할 때만, 올바른 우리말 음절의 로마자 표기 즉, 음기기준으로는 2,793개, 철자기준으로는 11,172개 그 모두가 하나하나 차별화 되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컴퓨터 변환 시스템을 통해 본, 문광부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내용의 구조적 모순점과 그 눈속임

1 현행 국어의 로마자 변환기에는 인명/고유명사/행정구역/일반/학술용 5가지를 구분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그런 표기방식은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일본어나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필요 없는 구분이다.

2 우리말 영어식 표기법(金福文교수 개발)은 일본어나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처럼 그 내용이 일람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치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위와 같은 5가지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같은 소릿값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3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결정적인 결함은 표기된 로마자에 대한 발음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가 ISO 규정에서 금지된 기(既)사용 표기단위의 중복사용이 너무나 많아 전혀 다른 한국어의 소릿값인 경우라도 그것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는 사태를 빚음으로써,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는 표기법을 만들어 놓았다.

한 예를 들면, 로마자 변환기에 따르면 소릿값이 전혀 다른 ① ‘아버지’와 ‘아베오지’가 Abeoji로 ② ‘어머니’와 ‘에오메오니’가 Eomeoni로 ③ ‘서대문’과 ‘세오다에문’이 Seodaemun 으로 ④ ‘금강산’과 ‘게움강산’이 Geum Gang San으로, 그리고 ⑤ ‘거북선’과 ‘게오북세온’이 Geo Buk Seon으로, 그들 모두가 전혀 다른 소릿값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자 표기상 그 철자가 모두 同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자기당착·자체모순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4 이 같은 이유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마자 변환기가 표기해내는 로마자 표기는 현실적인 한국어와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말과 내용이 다른, 바꿔 말하면 눈속임에 불과 한 것이 된다.

또 ‘우리가’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컴퓨터 변환기 상에서는 ‘uriga’로 되었다가 학술응용의 경우는 그 표기가 바뀌어 ‘uliga’로 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로마자 표기 사례로서 그것들을 차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발음의 기준이 없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영어식 로마자표기법 대비 》

비 고 단 어	문화관광부 고시 2000-8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모의발음부호법 이론 입각,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
	영어발음	이태리어발음	영어발음
1. 아 버 지 (3음절)	A beo ji (3음절) 에이.보.자이	A beo ji (4음절) 아.베.오.지	Ah bur jee (3음절) 아버지
2. 어 머 니 (3음절)	Eo meo ni (3음절) 요.묘.나이	Eo meo ni (5음절) 애.오.메.오.니	Ur mur nee (3음절) 어머니
3. 서 대 문 (3음절)	Seo dae mun (3음절) 쇼.대.문	Seo dae mun (5음절) 세.오.다.에.문	Sur dae moon (3음절) 서대문
4. 금 강 산 (3음절)	Geum gang san (3음절) 줌.강.센	Geum gang san (4음절) 개.움.강.산	Gum gahng sahn (3음절) 금강산
5. 거 북 선 (3음절)	Geo buk seon (3음절) 죠.북.손	Geo buk seon (5음절) 개.오.북.세.운	Gur book surn (3음절) 거북선

5

우리말 소릿값이 다르면 로마자 표기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다른 우리말 소리에 대하여 로마자 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례

자료출처: 우리말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

로마자 변환기

변환할 낱말이나 문장을 넣어 보십시오.

아버지

인명
 고유명사
 행정구역
 일반
 학술응용
 모두

로마자 변환기는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2000. 7. 7.)를 따릅니다. 표기의 기본 원칙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로마자 변환기의 각 버튼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명 : 사람의 이름을 변환합니다.
2. 고유명사 : 행정구역, 교통관련지명, 인명을 제외한 고유명사를 변환합니다.
3. 행정구역 : 행정구역, 교통관련지명을 변환합니다.
4. 일반 :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를 변환합니다. 1,2,3에 관련없이 변환합니다.
5. 학술응용 :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할때 변환합니다.
6. 위의 모든 항목을 같이 보여줍니다.

1) 아버지(Abeoji) = 아베오지(Abeoji)??

변환결과

일반	일반적인 문장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아버지
일반	abeoji

同一表記

변환결과

일반	일반적인 문장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아베오지
일반	abeoji
허용	abe-oji
허용도움말	*베 : 이어지는 글자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중앙 [Jung-ang] 준강 [Jun-gang], 반구대 [Ban-gudae] 방우대 [Bang-udae], 세운 [Se-un] 순 [Seun], 해운대 [Hae-undae] 하운대 [Ha-eundae]

2) 어머니(Eomeoni) = 에오메오니(Eomeoni)??

일반	일반적인 문장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어머니
일반	eomeoni

同一表記

일반	일반적인 문장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에오메오니
일반	eomeoni
허용	e-ome-oni
허용도움말	*메 : 이어지는 글자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중앙 [Jung-ang] 준강[Jun-gang], 반구대[Ban-gudae] 방우대[Bang-udae], 세운[Se-un] 슌[Seun], 해운대[Hae-undae] 하은대[Ha-eundae]

3) 우리가 : uliga, uriga??

인명	사람의 이름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단, 행정 구역과 교통 지명, 인명은 따로 처리합니다.	
행정구역	행정 구역과 교통 관련 지명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일반	문장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학술응용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합니다.	
한글	우리가	
인명	[원칙] U Riga	도움말
	[허용] <u>U Ri-ga</u>	허용도움
고유명사	Uriga	
행정구역	Uri-ga	도움말
일반	uriga	
학술응용	uliga	도움말

6

로마자 변환기를 통하여 5가지로 달리 나오는 문광부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사례—아무도알 수 없고 읽는사람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 자체모순의 극치—

로마자 변환기

변환결과

인 명	사람의 이름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단, 행정구역과 교통지명, 인명은 따로 처리합니다.
행정구역	행정 구역과 교통 관련 지명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일 반	문장을 로마자로 변환합니다.
학술응용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합니다.

한 글	예전에 보았던 푸른 하늘 눈부신 태양 마음에 프리즘 빛났던 그 계절 지금 추억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솔직할 수 없어. 사랑하면서 타오르며 당신에게 한결 같았던 그 여름 두번 다시 풀 수 없는 꼬여버린 순정이여.
-----	--

인 명	인명이 아닙니다.
-----	-----------

고유명사	[원칙] Yejeone Boatdeon Pureun Haneul Nunbusin Taeyang Maeume Peurijeum Binnatdeon Geu Gyejeol Jigeum Chueokeuro Areumdapge Muldeulgo Doragago Sipeo. Hajiman Geureol Su Eopseo. Soljikhhal Su Eopseo. Saranghameonseo Taoreumyeo Dangsinege Hangyeol Gachitdeon Geu Yeoreum Dubeon Dasi Pul Su Eomneun Kkoyeobeorin Sunjeongiyeo. [허용] Ma-eume . . . Han-gyeol Sunjeong-iyeo.
------	---

행정구역	[원칙] Yejeone Boatdeon Pureun Haneul Nunbusin Taeyang Maeume Peurijeum Binnatdeon Geu Gyejeol Jigeum Chueokeuro Areumdapge Muldeulgo Doragago Sipeo. Hajiman Geureol Su Eopseo. Soljikhhal Su Eopseo. Saranghameonseo Taoreumyeo Dangsinege Hangyeol Gachitdeon Geu Yeoreum Dubeon Da-si Pul Su Eomneun Kkoyeobeorin Sunjeongiyeo. [허용] Ma-eume . . . Han-gyeol Sunjeong-iyeo.
------	--

일 반	[원칙] yejeone boatdeon pureun haneul nunbusin taeyang maeume peurijeum binnatdeon geu gyejeol jigeum chueokeuro areumdapge muldeulgo doragago sipeo. hajiman geureol su eopseo. soljikhhal su eopseo. saranghameonseo taoreumyeo dangsinege hangyeol gachitdeon geu yeoreum dubeon dasi pul su eomneun kkoyeobeorin sunjeongiyeo. [허용] ma-eume . . . Han-gyeol sunjeong-iyeo.
-----	---

학술응용	[원칙] yejeon-e bo-assdeon puleun haneul nunbusin tae-yang ma-eum-e peulijeum bichnassdeon geu gyejeol jigeum chu-eog-eulo aleumdabge muldeulgo dol-agago sip-eo. hajiman geuleol su eobs-eo. soljighal su eobs-eo. salanghameonseo ta-oleumyeo dangsin-ege hangyeol gat-assdeon geu yeoleum dubeon dasi pul su eobsneun kko-yeobeolin sunjeong-i-yeo.
------	--

Pseudo-phonetic System and Methods in chart form and in practice as applied to Korean Romanization based on English Pronunciation

② **우리말 英語式 표기법의 총괄내역**

한 장의 종이 위에 일람表로 요약 정리된 국어의 영어식(로마자) 표기법 理論총괄

◆ **한글의 母音** (Vowel Unit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번호	한 글	영어발음기준 표기
1	ㅏ	AH
2	ㅑ	YAH
3	ㅓ	UR
4	ㅕ	YUR
5	ㅗ	OH (O-)
6	ㅛ	YOH (YO-)
7	ㅜ	OO
8	ㅠ	YOO
9	ㅡ	UH (U-)
10	ㅣ	EE (I-)
11	ㅘ	AE
12	ㅙ	YAE
13	ㅚ	EH (E-)
14	ㅜ이	YEH (YE-)
15	ㅞ	WEH (WE-)
16	ㅟ	WAH
17	ㅠ	WAE
18	ㅢ	WOH (WO-)
19	ㅣ	OOEH (OOE-)
20	ㅤ	WEE (WI-)
21	ㅥ	UI

1] 英語 콘사이스 사전에는 半母音으로 Y, W, R 3개가 있는바, 현 政府의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ㅏ, ㅑ, ㅓ, ㅕ, ㅗ (아, 이, 우, 예, 오) 라는 5개의 자국어 모음글자의 로마자 표기의 발음기준이 이태리어인 일본방식을 한국이 일본 식민지통치하에 있었을 때 모방, 해당 국어 로마자 모음표기를 그것들과 同一하게 하고, 반모음중 Y, W 2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 개발의 『英語발음 기준 모의(模擬) 발음부호법』에서는 'R' 를 포함한 반모음 3개와 필요에 따라 'H' 를 활용, 일본어의 총음절수 112개, 중국어의 총음절수 421개보다 훨씬 많은 국어의 총음절수, 즉 音價 기준 2,793개, 綴字 기준 11,172개 그 모두에 대한 한글소리값 하나 하나를 英語사용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정리 체계화, 국어로마자 表記의 학문적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이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표음(表音) 문자로서 한글이 갖는 세계적 우수성과 그 과학성을 드디어 입증하게 되었음.

2] 김복문교수 개발안에서 괄호밖 및 괄호안에 표기된 로마자 표기의 각 이용이해 방법은, 괄호밖의 것은 받침이 없을때 사용하고 괄호안의 것은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것임. 한 예를 들면 표기방식 Oh(O-)에 있어 Oh는 받침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오' 는 'Oh' 로 그리고 '온' 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O' 에다가 'L' 소리에 해당하는 로마자인 N을 붙여 On으로 하면 된다는 뜻으로 그 이유는 'Ohn' 이 되면 1박자라야 하는 음절길이가 그 이상으로 되기 때문임. 음절의 두음이 '우'일때는 반모음'W'를 그 앞에 붙여 Wwoo로 함.

◆ **한글의 子音** (Consonant Unit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번호	한 글	영어발음기준 표기		
		初 聲	終 聲	
	종성다음이 바로 母音일때		종성으로 끝나거나, 다음이 子音일때	
1	ㄱ	G	G	K
2	ㅋ	K	K	K
3	ㄲ	KK	KK	K
4	ㄷ	D	D	T
5	ㅌ	T	T	T
6	ㄸ	TT	(-)	(-)
7	ㅂ	B	B	P
8	ㅃ	P	P	P
9	ㅍ	PP	(-)	(-)
10	ㅈ	J	J	T
11	ㅊ	CH	CH	T
12	ㅉ	TJ	(-)	(-)
13	ㅅ	S	S	T
14	ㅆ	TS	TS	T
15	ㅎ	H	H	T
16	ㅇ	(-)	NG-	NG
17	ㄴ	N	N	N
18	ㄹ	R	R	L
19	ㅁ	M	M	M
20	ㅂ	-	KS	K
21	ㅅ	-	NJ	N
22	ㅇ	-	NH	N
23	ㄹ	-	LG	K
24	ㅃ	-	LB	P
25	ㅍ	-	LM	M
26	ㅍ	-	LP	P
27	ㄹ	-	LH	L
28	ㅃ	-	PS	P

3] 국어의 영문 로마자 表記에 있어 의당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 A, E, I, O, U가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고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인데, 이들 모음글자들에 가해야 될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은 바, 이는 영어음절 한 단위가 요하는 철자수는 로마자에 대한 영문명칭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자 이상이라는 현상때문임. 그렇다고 하여 영문표기라는 이유로, 소요되는 철자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음.

- 1] A는 h 또는 e가 뒤따라야만 'ㅏ'(Ah) 또는 'ㅑ'(Ae)로 활용될 수 있으며,
- 2] E는 e와 합하여 母音 'ㅣ'(E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h' 또는 子音을 받침으로 두어야만 'ㅚ'(Eh)가 되거나 그 子音 받침에 해당하는 'ㅚ' 소리를 갖는 '에'가 되고, 또 'A'뒤에 붙어 'ㅑ'(Ae)소리 母音이 되며,
- 3] I/O 'U'를 앞세워 'ㅣ'(Ui)가 되거나 받침으로 되는 子音을 뒤에 두어야만 그 받침 소리가 붙은 'ㅣ' 소리가 되고,
- 4] O역시 'h'를 뒤에 두어야만 'ㅇ'소리로 활용되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받침을 동반하여야만 하고, 또 O에다가 O를 하나 바로 덧붙여서 즉, 'Oo'로 하였을 때 'ㅓ'소리를 내는 영어발음기준의 국어 로마자표기 철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5] U또한 'ㅣ'와 'r' 및 'h' 를 뒤에 두어야만 'ㅣ'(Ui), 'ㅓ'(Ur) 및 'ㅡ'(Uh)로 각각 활용될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子音 받침을 동반하여야만 국어 로마자 표기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A, E, I, O, U 는 그 모두가 한글의 로마자 表記法상 단독으로는 그 사용가치가 없는 로마자母音글자들이라는 것임.

4] 국어의 자음관련 문법인 7종성은 김교수 개발안을 따를 경우,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음을 알게됨.

5] 음운의 변이에 따른 남북한의 발음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문제의 단순화를 위하여 국영 또는 국어 또는 국한사전 등에서 그 해당부분만 구분표기 하여 두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됨.

Korean alphabet and its syllabic units Romanized as per Prof. Bokmoon Kim's system with final consonants based on English pronunciation

한글의 원리와 그 소리값을 바탕으로 한 일람표 형식으로 된 (김복문 교수 개발) 받침 있는 한글/한국어 영어식(로마자)표기법의 기본내용

Names and Sound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한글의 字母 명칭과 그 발음)		Examples of Romanized Compounds of Vowels and Consonant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with Final Consonants (한글의 로마자 표기사례)				
한글	발음	영어발음기준 그 표기	한글자모(1)의 초성(1A)과 종성(1B)의 영어발음 표기 (1) [1A 1B]	한글모음의 영어발음기준표기 (2)	받침없는 한글 모·자음 기본음절표기 (3) (1A)+ (2)	받침있는 한글 모·자음 기본음절표기 (4) (1A)+ (2)+ (1B)
ㄱ	[기역]	[Gee - gurK]	ㄱ [G-K]	ㅏ - Ah	가 - Gah	각 - Gahk
ㄴ	[니은]	[Nee - uN]	ㄴ [N-N]	ㅑ - Yah	냐 - Nyah	냇 - Nyahn
ㄷ	[디귄]	[Dee - guT]	ㄷ [D-T]	ㅓ - Ur	더 - Dur	덜 - Durt
ㄹ	[리을]	[Ree - uL]	ㄹ [R-L]	ㅕ - Yur	려 - Ryur	렐 - Ryurl
ㅁ	[미음]	[Mee - uM]	ㅁ [M-M]	ㅗ - Oh(O-)	모 - Moh	뎌 - Mom
ㅂ	[비읍]	[Bee - uP]	ㅂ [B-P]	ㅛ - Yoh(Yo-)	뎌 - Byoh	뎌 - Byop
ㅅ	[시옷]	[See - oT]	ㅅ [S-T]	ㅜ - Oo	수 - Soo	쑈 - Soot
ㅇ	[이응]	[Ee - uNG]	ㅇ [ㅇ-NG]	ㅠ - Yoo	유 - Yoo	윽 - Yoong
ㅈ	[지읒]	[Jee - uT]	ㅈ [J-T]	ㅡ - Uh(U-)	즈 - Juh	쑈 - Jut
ㅊ	[치읓]	[Chee - uT]	ㅊ [CH-T]	ㅣ - Ee(I-)	치 - Chee	쑈 - Chit
ㅋ	[키읔]	[Kee - uK]	ㅋ [K-T]	ㅐ - Ae	캐 - Kae	깁 - Kaek
ㅌ	[티읕]	[Tee - uT]	ㅌ [T-T]	ㅑ - Yae	태 - Tyae	뎌 - Tyaet
ㅍ	[피읖]	[Pee - uP]	ㅍ [P-P]	ㅓ - Eh(E-)	페 - Peh	뎌 - Pep
ㅎ	[히읇]	[Hee - uT]	ㅎ [H-T]	ㅕ - Yeh(Ye-)	헤 - Hyeh	헛 - Hyet
ㄱ	[쌍기역]	[Kkee - gurK]	ㄱ [KK-K]	ㅓ - Weh(We-)	꺄 - Kkweh	꺄 - Kkwek
ㄷ	[쌍디귄]	[Ttee - guT]	ㄷ [TT-T]	ㅑ - Wah	뎌 - Ttwah	뎌 - Ttwaht
ㅂ	[쌍비읍]	[Ppee - uP]	ㅂ [PP-P]	ㅓ - Wae	뎌 - Ppwe	뎌 - Ppwaep
ㅅ	[쌍시옷]	[Tsee - oT]	ㅅ [TS-T]	ㅛ - Woh(Wo-)	쑈 - Tswoh	쑈 - Tswot
ㅇ	[쌍이응]	[Tjee - uT]	ㅇ [TJ-T]	ㅕ - Ooeh(Ooe-)	꺄 - Tjooeh	꺄 - Tjooet
(초성19개, 종성 7개)			(19개-7개)	기 - Wee(Wi-)	위 - Wee	Wi + 해당종성철자
				기 - Ui	의 - Ui	Ui + 해당종성철자

- 1) 위 표에서 보듯이 영어발음기준(김복문교수 개발)의 로마자표기는 모음 21개, 초성(初聲) 자모 19개, 종성(終聲) K, N, T, L, M, P, NG 라는 7개 외 쌍받침 포함한 받침철자수가 총 28개나 되는 우리나라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즉 음가기준으로는 2,793개, 철자기준으로 11,172개에 대한 표기 모두에 대한 소리값을 하나하나 차별화 하여 낼 수 있도록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연구 끝에 드디어 찾아내어 그 내용을 정리 체계화함으로써 표준문자로서 한글이 갖는 세계적 우수성과 과학성을 입증하게 됨.
- 2) 김복문교수 개발 안에서 괄호밖 및 괄호안에 표기된 로마자 표기의 각 이용·이해 방법은, 괄호 밖의 것은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고 괄호 안의 것은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것임. 한 예를 들면 표기방식 Oh(O-)에 있어 Oh 는 받침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오’는 ‘Oh’ 로 ‘온’ 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O’ 에다가 ‘ㄴ’ 소리에 해당하는 로마字인 N 을 붙여 On 으로 하면 된다는 뜻임. 이 경우 ‘h’를 제거함이 없이 Ohn 으로 할 경우 1박자(拍子) 이었던 음절의 길이가 ‘N’ 의 추가로 1음절 1박자라는 음절단위 길이가 1.5박자가 되어 맞지 않기 때문임.

Prof. Bokmoon Kim's chart of syllabic units of Romanized compounds of vowels and consonant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not accompanying final consonants

영어발음기준의 모의발음부호법 이론 입각의
우리말 英語式(로마자)표기법 이론체계의 도표화

—한국어 기본음절의 영어식(로마자)표기 일람표—

ㅏ(Ah) ~ ㅓ(Ae)

母音 子音	ㅏ Ah	ㅑ Yah	ㅓ Ur	ㅕ Yur	ㅗ Oh [O-]	ㅛ Yoh [Yo-]	ㅜ Oo	ㅠ Yoo	ㅡ Uh [U-]	ㅣ Ee [I-]	ㅚ Ae
ㄱ-G	Gah	Gyah	Gur	Gyur	Goh	Gyoh	Goo	Gyoo	Guh	Gee	Gae
ㄴ-N	Nah	Nyah	Nur	Nyur	Noh	Nyoh	Noo	Nyoo	Nuh	Nee	Nae
ㄷ-D	Dah	Dyah	Dur	Dyur	Doh	Dyoh	Doo	Dyoo	Duh	Dee	Dae
ㄹ-R	Rah	Ryah	Rur	Ryur	Roh	Ryoh	Roo	Ryoo	Ruh	Ree	Rae
ㅁ-M	Mah	Myah	Mur	Myur	Moh	Myoh	Moo	Myoo	Muh	Mee	Mae
ㅂ-B	Bah	Byah	Bur	Byur	Boh	Byoh	Boo	Byoo	Buh	Bee	Bae
ㅅ-S	Sah	Syah	Sur	Syur	Soh	Syoh	Soo	Syoo	Suh	See	Sae
ㅇ-	Ah	Yah	Ur	Yur	Oh	Yoh	Oo	Yoo	Uh	Ee	Ae
ㅈ-J	Jah	Jyah	Jur	Jyur	Joh	Jyoh	Joo	Jyoo	Juh	Jee	Jae
ㅊ-CH	Chah	Chyah	Chur	Chyur	Choh	Chyoh	Choo	Chyoo	Chuh	Chee	Chae
ㅋ-K	Kah	Kyah	Kur	Kyur	Koh	Kyoh	Koo	Kyoo	Kuh	Kee	Kae
ㅌ-T	Tah	Tyah	Tur	Tyur	Toh	Tyoh	Too	Tyoo	Tuh	Tee	Tae
ㅍ-P	Pah	Pyah	Pur	Pyur	Poh	Pyoh	Poo	Pyoo	Puh	Pee	Pae
ㅎ-H	Hah	Hyah	Hur	Hyur	Hoh	Hyoh	Hoo	Hyoo	Huh	Hee	Hae
ㄱㄱ-KK	Kkah	Kkyah	Kkur	Kkyur	Kkoh	Kkyoh	Kkoo	Kkyoo	Kkuh	Kkee	Kktae
ㄷㄷ-TT	Ttah	Ttyah	Ttur	Ttyur	Ttoh	Ttyoh	Ttoo	Ttyoo	Ttuh	Ttee	Ttae
ㅍㅍ-PP	Ppah	Ppyah	Ppur	Ppyur	Ppoh	Ppyoh	Ppoo	Ppyoo	Ppuh	Ppee	Ppae
ㅅㅅ-TS	Tsah	Tsyah	Tsur	Tsyur	Tsoh	Tsyoh	Tsoo	Tsyoo	Tsuh	Tsee	Tsae
ㅈㅈ-TJ	Tjah	Tjyah	Tjur	Tjyur	Tjoh	Tjyoh	Tjoo	Tjyoo	Tjuh	Tjee	Tjae

Prof. Bokmoon Kim's chart of syllabic units of Romanized compounds of vowels and consonants of the Korean alphabet or hahn-gul not accompanying final consonants

영어발음기준의 모의발음부호법 이론 입각의
우리말 英語式(로마자)표기법 이론체계의 도표화

—한국어 기본음절의 영어식(로마자)표기 일람표—

ㅞ (Yae) ~ ㅟ (Ui)

母音 子音	ㅞ Yae	ㅟ Eh [E-]	ㅠ Yeh [Ye-]	ㅡ Wah	ㅢ Wae	ㅣ Weh [We-]	ㅤ Woh [Wo-]	ㅥ Ooeh [Ooe-]	ㅦ Wee [Wi-]	ㅧ Ui
ㄱ-G	Gyae	Geh	Gyeh	Gwah	Gwae	Gweh	Gwoh	Gooh	Gwee	Gui
ㄴ-N	Nyae	Neh	Nyeh	Nwah	Nwae	Nweh	Nwoh	Nooh	Nwee	Nui
ㄷ-D	Dyae	Deh	Dyeh	Dwah	Dwae	Dweh	Dwoh	Dooh	Dwee	Dui
ㄹ-R	Ryae	Reh	Ryeh	Rwah	Rwae	Rweh	Rwoh	Rooh	Rwee	Rui
ㅁ-M	Myae	Meh	Myeh	Mwah	Mwae	Mweh	Mwoh	Mooh	Mwee	Mui
ㅂ-B	Byae	Beh	Byeh	Bwah	Bwae	Bweh	Bwoh	Booh	Bwee	Bui
ㅅ-S	Syae	Seh	Syeh	Swah	Swae	Sweh	Swoh	Sooeh	Swee	Sui
ㅇ-	Yae	Eh	Yeh	Wah	Wae	Weh	Woh	Ooeh	Wee	Ui
ㅈ-J	Jyae	Jeh	Jyeh	Jwah	Jwae	Jweh	Jwoh	Jooh	Jwee	Jui
ㅊ-CH	Chyae	Cheh	Chyeh	Chwah	Chwae	Chweh	Chwoh	Chooeh	Chwee	Chui
ㅋ-K	Kyae	Keh	Kyeh	Kwah	Kwae	Kweh	Kwoh	Kooh	Kwee	Kui
ㅌ-T	Tyae	Teh	Tyeh	Twah	Twae	Tweh	Twoh	Tooh	Twee	Tui
ㅍ-P	Pyae	Peh	Pyeh	Pwah	Pwae	Pweh	Pwoh	Pooh	Pwee	Pui
ㅎ-H	Hyae	Heh	Hyeh	Hwah	Hwae	Hweh	Hwoh	Hooeh	Hwee	Hui
ㄱㄱ-KK	Kkyae	Kkeh	Kkyeh	Kkwah	Kkwae	Kkweh	Kkwoh	Kkooeh	Kkwee	Kkui
ㄷㄷ-TT	Ttyae	Tteh	Ttyeh	Ttwah	Ttwae	Ttweh	Ttwoh	Ttooeh	Ttwee	Ttui
ㅍㅍ-PP	Ppyae	Ppeh	Ppyeh	Ppwah	Ppwae	Ppweh	Ppwoh	Ppooeh	Ppwee	Ppui
ㅈㅈ-TS	Tsyae	Tseh	Tsyeh	Tswah	Tswae	Tsweh	Tswoh	Tsooh	Tswee	Tsui
ㅊㅊ-TJ	Tjyae	Tjeh	Tjyeh	Tjwah	Tjwae	Tjweh	Tjwoh	Tjooeh	Tjwee	Tjui

Transition of Korean Romanization (1959~2004)

표를 통해 본 在來式 및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 對比
한글/한국어의 英語式(로마자)표기법 안(김복문 교수 개발)

▣ 문광부고시 2000-8 ➡ 용도폐기된 식민지잔재 한글학회안(1959~1983/4)으로의 회귀 ▣

▷ 各案 母音 (Vowel spelling and pronunciation under various systems including M/R)

비 해 면	한글	한글 ¹⁾ 학회안 (1959~1983)	한글 ²⁾ 학회안 (1984)	문교부 고시 ³⁾ 84-1 (M/R안) 중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84~2000.6)	문광부고시 ⁴⁾ 2000-8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00.7~현재)	모의(模擬)발음 ⁵⁾ 부호법이론 입각 영어식표기법 (김복문교수 개발) Prof B. Kim's System
1	ㅏ	A	A	A	A	AH
2	ㅑ	YA	YA	YA	YA	YAH
3	ㅓ	EO	EO	Ö (O)	EO	UR
4	ㅕ	YE O	YE O	YÖ (YO)	YEO	YUR
5	ㅗ	O	O	O	O	OH(O-)
6	ㅛ	YO	YO	YO	YO	YOH(YO-)
7	ㅜ	U	U	U	U	OO
8	ㅠ	YU	YU	YU	YU	YOO
9	ㅡ	<u>E U</u>	<u>EU</u>	Ů (U)	EU	UH(U-)
10	ㅣ	I	I	I	I	EE(I-)
11	ㅞ	<u>A E</u>	<u>A E</u>	<u>A E</u>	AE	AE
12	ㅟ	<u>YA E</u>	<u>YA E</u>	<u>YA E</u>	YAE	YAE
13	ㅚ	E	E	E	E	EH(E-)
14	ㅜ	<u>YE</u>	<u>YE</u>	YE	YE	YEH(YE-)
15	ㅝ	<u>O E</u>	<u>O E</u>	<u>O E</u>	OE	WEH(WE-)
16	ㅞ	WA	WA	WA	WA	WAH
17	ㅟ	<u>WA E</u>	<u>WA E</u>	<u>WA E</u>	WAE	WAE
18	ㅠ	<u>WE O</u>	→ WO	WÖ (WO)	WO	WOH(WO-)
19	ㅡ	WE	WE	WE	WE	OOEH(OOE-)
20	ㅢ	WI	WI	WI	WI	WEE(WI-)
21	ㅣ	<u>E U I</u>	→ UI	ŮI (U I)	UI	UI
備 考	ISO 지침준수 여부 등 그 평가	.부호사용 無이나 .음절표기 중복사용이 너무 많아 ISO지침 배치 .음가반영: 현실 괴리 甚大 부적합. 한글학회안 1984는 문 광부고시 2000-8과 내용동일.	.부호사용 5개 .음절표기 중복사용 14 개 등 ISO지침 배치 .음가반영: 현실괴리 甚大부적합	.부호사용 無. 그러나 음절표기 중복 사용 너 무 많아 ISO지침 완전 배치 .음가반영: 현실괴리 甚大부적합	.부호사용 無, 음절표 기 중복사용 無, 원철 자 회복 소리값 옮김이 란 ISO지침 4가지 완 전준수로 음가반영, 사 실상 100%	

1)은 김선기, 2)는 이현복, 3)은 김완진 주도로 볼 수 있으며, 4)는 이현복-김세중, 김완진 양대 세력의 주도아래 문광부 당국자의 협조로 이루어진, 맞지 않고 불합리해 아무도 알 수 없는, 반민족적 나라 망치는 일제잔재 엉터리 표기법임. 5)는 김복문 교수 개발안으로, 괄호밖에 표기된 로마자와 괄호안에 표기된 로마자의 사용방법은, 괄호밖의 것은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고, 괄호안의 것은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것임. 일례를 들면 표기방식 OH(O-)에 있어 OH는 받침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오’는 ‘OH’로 그리고 ‘온’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O’에다가 ‘ㄴ’ 소리에 해당하는 로마자인 ‘N’을 붙여 ‘ON’으로 하면 된다는 뜻임. ‘Ohn’이 되면 1박자라야 하는 음절길이가 그 이상으로 되기 때문임.

Comparison of official Japanese system of Romanization
and that of Prof. B. Kim's as applied to Korean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과 모의(模擬)발음부호법 입각의
한국어(英語式)로마자 표기법의 실제적용사례 대비표**

Factors affecting Japanese Romanization 일본어(日本語)	MOTC's new System of Korean Romanization 문광부 고시 2000-8 새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Factors affecting Prof. B. Kim's system of Korean Romanization 한국어(韓國語)
① 발음의 기준은 모음의 경우는 이태리어, 자음의 경우는 영어, (모음 음절수 5개(→12개)) ② 수요대상자: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이해하는 외국인 ③ 로마자 표기화 대상 총 음절수: 112개 ④ 받침수: “N” (ㄴ)字 1개 ⑤ 기타 추가사항: 촉음(促音) I tt o, N pp on, I ss ho, I kk ai 4가지 반영요.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것과 그 단서조항으로 ② “학문의 경우는 철자를 따라 적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한 두마디뿐, 발음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평가를 할 수 없음. 따라서 국제경쟁력 전무(全無, 0%)	① 모음의 경우도 영어, 자음의 경우도 영어, 모음 음절수 21개 ② 수요대상자: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이해하는 외국인 ③ 로마자 표기화대상 총음절수: 발음기준 2,793개, 철자기준 11,172개 ④ 받침수:홀받침,쌍받침 포함하여 28개 ⑤ 기타 추가사항 : 7종성 및 음운의 변이 7가지 반영 요.

◎ Romanization of the song "Memories of Glass" according to official Japanese system.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 일람표”에 의한 (“ガラスのメモリーズ” 라는 일본의 가요 로마자 표기

ガラスのメモリーズ(글라스의 메모리) 라는 일본어 노래 가사와 로마자표기법 사례		음절수	글자수
1	일본어: 昔見た靑空 照りつける太陽 로마자: (Mukashi mita aozora teritsukeru taiyou)	19	- 34
2	일본어: 心にもプリズム 輝いた季節 로마자: (Kokoro ni mo purizumu (prism) kagayaita kisetsu)	17	- 34
3	일본어: 今となりゃ 思い出 美しくにじんで 로마자: (Ima to narya omoide utsukushiku nijinde)	17	- 34
4	일본어: 戻りたい 歸れない 素直になれない 로마자: (Modoritai kaerenai Sunao ni narenai)	18	- 31
5	일본어: 戀して焦がれて 로마자: (Koishite kogarete)	8	- 16
6	일본어: あなたに一途だった あの頃 로마자: (anata ni ichizu datta ano koro)	13	- 25
7	일본어: 二度とはほどけないの ねじれた純情 로마자: (Nido to wa hodokenai no nejireta junjou)	17	- 33
일본어 음절수와 글자수 총 합계		일본어 음절수 합계 로마자 철자수 합계	109 207

◎ Romanizat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above-mentioned Japanese song "Memories of Glass" according to Prof. B. Kim's system

앞의 日語 노래 가사 “글라스의 메모리”의 번역에 대한 “국어의 英語式 로마자 표기 일람표”에 따른 로마자 표기사례

※ 모의(模擬)발음부호법 理論 입각의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김교수 개발)이 될 때만 영어식 로마자 표기 음절수와 우리말 음절수가 일치하고 그 소리값 옮김도 100% 정확한데 비해,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은 소리값 옮김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음절수도 더 많아져 국제경쟁력이 전무(全無)함.		음절 수	글자 수
1	한국어: 예 전 에(→에저네) 보 았던 푸른 하늘 눈 부신 태양 로마자: (Yeh jurneh boh ahtdurn poorun hahnul noon boosin taeyahng)	15	49
2	한국어: 마 음 에(→마으메) 프리즘 빛 냈 던 그 시절 로마자: (Mah uhme h pooreejum bit nahtdurn guh seejurl)	12	38
3	한국어: 지 금 추 억 으 로(→어그로) 아 름 답 게 물 들 고 로마자: (Jeegum choo urguhroh ahrum dahpgyeh mool dulgo h)	13	41
4	한국어: 되 돌 아(→도라) 가 고 싶 다 갈 수 없 다 솔 직 할 수 없 다 로마자: (Dwehdohrah gahgo h sipdah gahlsoourpdah Soljik hahlsoo urpdah)	17	54
5	한국어: 사 랑 하 며 애 태 우 며 로마자: Sahrahng hahmyur aetaewoomyur	8	27
6	한국어: 당 신 에 게(→시네게) 한 결 같 았 던(같 았→가 뵈) 그 시절 로마자: (Dahng seenehgeh hahn gyurl gah taht durn guh seejurl)	12	43
7	한국어: 두 번 다 시 풀 수 없 는 꼬 여 버 린 순 정 로마자: (Doo burn dahsee poolsoo urpnun kkoh yur burrin soonjurng)	14	53
한국어 음절 총 수와, 동 한국어에 대한 영어식 로마자 표기 음절수 각 합계		91	-
상기(上記) 한국어에 대한 영어식 로마자 표기에 소요된 철자수 총 합계		-	305

◆ 일본어와 한국어의 두 나라 로마자표기법 대비와 그 분석결과 논평

서로 다른 한일 양국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방식을 통해 동일내용의 가사에 대한 정확한 音價 옮김을 함에 있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 방식이 요한 음절 총 수는 109개, 글자 수는 207개가 되는데 비하여, 모의발음부호법 이론 입각의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이 요한 음절 총 수는 91개, 철자 총 수는 305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①한국어의 음절 총수가, 일본어의 총 음절수인 112개보다 음가기준으로는 그 약 25배나 되는 2,793개가 되고, 철자기준으로 약 100배가 되는 11,172개나 된다는 사실과 함께 ②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의 경우 1자 이상이면 1음절이 될 수 있는 데 비해 한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에서는 한 음절이 요하는 철자수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음만이든, 자모음 합한 것이든 항상 2자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요하는 철자수가 일본어보다 약간 많아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은, 언어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철자수가 아니라 음절수로서, 음절수가 적으면 그만큼 시간적 관점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추

가적인 엉터리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에 의한 문장의 로마자 표기와 100% 맞지 않는 발음 사례들

※ 이래서 외국인들의 관광, 對한국투자, 對한국수출입을 위한 한국방문이 의사소통상 지장등의 이유로 크게 줄어들어 경기불황, 대량 특히 청년층의 실업사태, 신용불량자 양산등 경기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추세를 면하기 어려워짐.

〈문장1〉 “제기동에서, 회기동을 거쳐 경동시장으로” 와

〈문장2〉 “고건씨가 언제 그런 말을 어디서 하였느냐? 에 관한

〈문장3〉 “지난 4년 동안 한국어문교육연구회는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강신항 선생님을 모시고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① 현행 문광부 고시 2000-8 표기에 대한 발음(완전 이해불가능; 0%)
- ② 올바른 우리말 영문표기와 그 발음(완전 이해가능; 100%)

〈문장1〉 “제기동에서, 회기동을 거쳐 경동시장으로”

◆ ① 현행 문광부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英語발음의 경우—

Jegi(지자이) Dong(동) E(이) Seo(쇼), Hoegi(호우자이) Dong(동)
Eul(울) Geo(죠) Chyeo(치요) Gyeong(가이웅) Dong(동) Si(사이)
Jang(쟝) Eu(유) Ro(로우)

“지자이동 이쇼, 호우자이동 울 죠치요 가이웅동 사이 쟝 유 로우”

▶ 이해불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0%)

◆ ② 올바른 우리말 英文 表記法 (金福文교수 개발)

—英語발음의 경우—

Jehkee(←gee)(제기) Dong(동) Eh(에) Sur(서),
Hwehkee(←gee)(회기) Dong(동) Ul(을) Gur(거) Chyur(쳐)
Gyurng(경) Dong(동) See(시) Jahng(쟝) Uh(으) Roh(로)

“제기동에서, 회기동을 거쳐 경동시장으로”

▶ 이해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100%)

<문장2> “고건씨가 언제 그런 말을 어디서 하였느냐?”

◆ ①-1 현행 문광부 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英語발음의 경우 —

Go(고우) Geon(죤) Ssi(샤이) Ga(게이) Eon(온) Je(지)
Geu(쥬) Reon(롸) Mal(몰) Eul(울) Eo(요) Di(다이) Seo(쇼)
Ha(헤이) Yeot(웁) Neu(뉴) Nya?(니에이?)

“고우 존 샤이 게이 온지 쥬롸 몰을 요다이쇼 헤이웁 뉴 니에이?”

▶ 이해불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0%)

◆ ①-2 현행 문광부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이태리語발음의 경우 —

“고 게온 시가 에온 제 게우 레온 말 에울 에오 디 세오 하 예웁 네 우냐?”

▶ 이해불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0%)

◆ ② 올바른 우리말 英文 表記法 (金福文교수 개발)

— 英語발음의 경우 —

Goh Gurn Tsee Gah (고건씨가)
Urnjeh Guhrun Mahrul (언제 그런말을)
Urdee sur(어디서)
Hahyurt Nuh Nyah (하였느냐?)

“고건씨가 언제 그런 말을 어디서 하였느냐?”

▶ 이해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100%)

<문장3> “지난 4년 동안 한국어문교육연구회는 학문적, 인격적으로
강신항 선생님을 모시고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현행 문광부 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英語발음의 경우** —

Ji nan 4(sa) nyeon dong an, han guk eo mun gyo yuk yeon gu hoe
자이 낸 세이 나이온 동 앤, 한 국 요 문 교우 이육 온 규 호우
neun, hang mun jeok, in gyeok jeo geuro jon gyeong ban neun
눈, 행 문 족, 인 가이옥 조 주로우 존 가이웅 뱀 눈
Gang Sin Hang seon saeng nim eul mo si go nae sil it neun
강 신 행 손 생 님 을 모우 사이 고우 내 실 있 눈
bal jeon eul geo deup hae wat seum ni da.
블 존 을 조 듭 해 왓 숨 나이 데이.

발음: 자이낸 세이나이온 동앤, 한국요문 교우이육온규 호우눈, 행문족,
인가이옥 조 주로우 존가이웅 뱀눈 갱신행 손생님을 모우사이고우
내실있눈 블존을 조듬해 왓숨나이데이.
《 全的으로 不合致 理解不可能 》

▶ 이해불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0%)

◆ **올바른 우리말 英文 表記法 (金福文교수 개발)**

— **英語발음의 경우** —

Jeenahn 4(sah)nyurn dong-ahn hahngook urmoon gyohyook yurngoo
hwehnun hahkmoonjurk, inkkyurk(←gyurk) jurg uhroh Jonggyurng
bahtnun Gahng, Sin Hahng surnsaengnim ul mohseegoh naesil itnun
bahljurnul gurduphae wahtsumneedah.

발음: 지난 4년 동안 한국어문교육연구회는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강신항 선생님을 모시고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100% 合致, 同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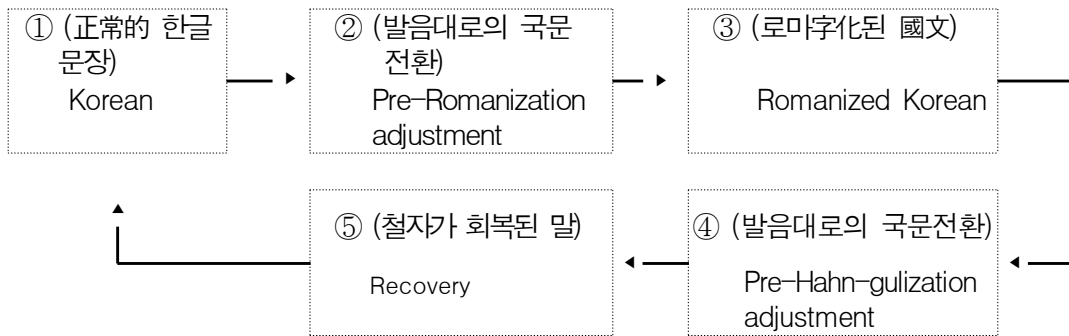
▶ 이해가능(소리값 전달 정확성 100%)

모의(模擬) 발음부호법 이론 입각의,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김복문교수개발)의 한글化 節次 過程과 自動變換 System

1) 한글화 절차 과정

한글이 곧 한국어는 아니다. 한글은 어디까지나 한국어의 표기의 수단일 뿐으로 전라도(全羅道)로 표기된 것에 대한 발음이 ‘절라도’가 되고 신라(新羅)로 표기된 것이 ‘실라’로 읽히는가 하면 종로(鐘路)로 표기된 한글이 ‘종로’로 읽히지 않고 그 발음은 ‘종노’가 되는, 이른바 綴字와 發音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한국어 언어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는 外國人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1次的 관심은 로마자를 통한 한국어의 정확한 소리를 알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발음소리(音價)의 정확한 옮김 즉, 轉寫(phonetic transcription)를 먼저 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1) 철자회복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수작업을 통하여 하는 방식과 컴퓨터에 의한 自動變換시스템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하는 방식 중 그 하나를 택하여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단계적 순서에 따라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圖式에 따라 “독립문 앞을 소리 없이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을 보고 그 사람은 시를 읊고 있다.” 라는 간단한 한국어 文章을 적용시키면 그 1단계는 바로 위의 문장이고, 그 2단계는 綴字를 무시한 발음위주가 된 내용의 것으로 그 글은 “동님문 아플 소리업시 흘러가는 말근 시내무를

1) Wells, J.C., “Why phonetic transcription is important” THE FIRST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NETIC SCIENCES, 1996, pp. 2-3

보고 그 사라픈 시를 읊고 있다.” 가 된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대로 옮겨진 한글에 대한 제 3단계의 로마자 표기는

“Dongnipmoon ahpul sohree urpsee hullur gahnun mahlgun seenaemoorul bohgoh guh sahrahmun seerul upgoh itdah.

로 된다.

로마자화가 끝나 한글화로 향하는 제 4단계는 바로 로마자가 한글로 轉字되었다는 점에서 제 4단계는 제 2단계와 동일 형태의 것이[제 4단계=제 2단계] 되며, 그 다음 제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뒷받침하는 한글맞춤법을 갖춘 한글 본연의 모습의 문장이 된다. 이 경우 소리와 철자간의 괴리현상을 낳게 한 요인은 한국어에 있기 마련인 音韻의 變異 즉, ①음운(두음)법칙 ②받침법칙 ③구개음화 ④설측음화 ⑤비음화 ⑥된소리화 ⑦거센소리화 현상의 존재 때문이다. 한글 받침에 내포된 表意的 현상 등이 없었다면 제 4단계의 轉字된 모습 그대로의 한글이 自動的으로 제 5단계의 것이 되어 한글화 작업은 끝나게 된다.

2) 자동변환 시스템 2)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함에 있어, 앞서 기술한 규칙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로마자로 바꾸는 자동변환 시스템은 다음 쪽, 그림 1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 자동변환 시스템은 우리 한글과 로마자 뿐 아니라 각종 언어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변환 시스템의 구성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기, 입력 데이터의 문법과 의미를 점검하는 문법 및 의미 분석기, 그리고 변환규칙을 다루는 규칙기반 및 규칙과 지식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변환시키는 변환 엔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변환 결과를 사용자에게 영상화시키는 출력기가 있다.

입력기는 한글 또는 로마자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읽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출력기는 변환시스템 내부에서 처리된 결과를 출력시킨다.

2) 이 자동변환시스템에서 언급된 그림1. 자동변환시스템 구성도와 그림2. 질의처리 흐름도는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柳根鎬 教授가 필자의 이론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作成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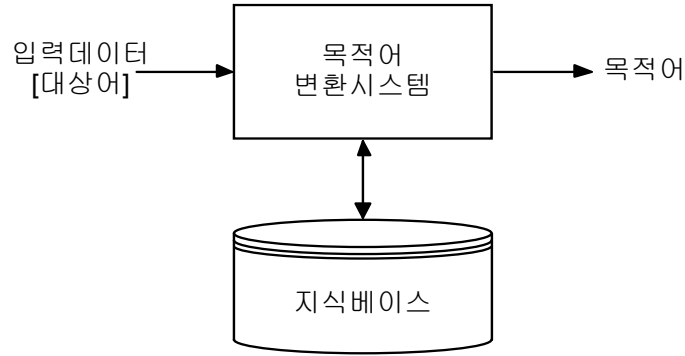


그림1. 자동 변환 시스템 구성도

예를 들어, 입력 대상어(語)가 로마자이고 목적언어가 한글이면 로마자는 한글로 변환된 결과를 각각 출력시킨다.

사용자가 원하는 번역문(입력데이터)을 변환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질의 처리 모델의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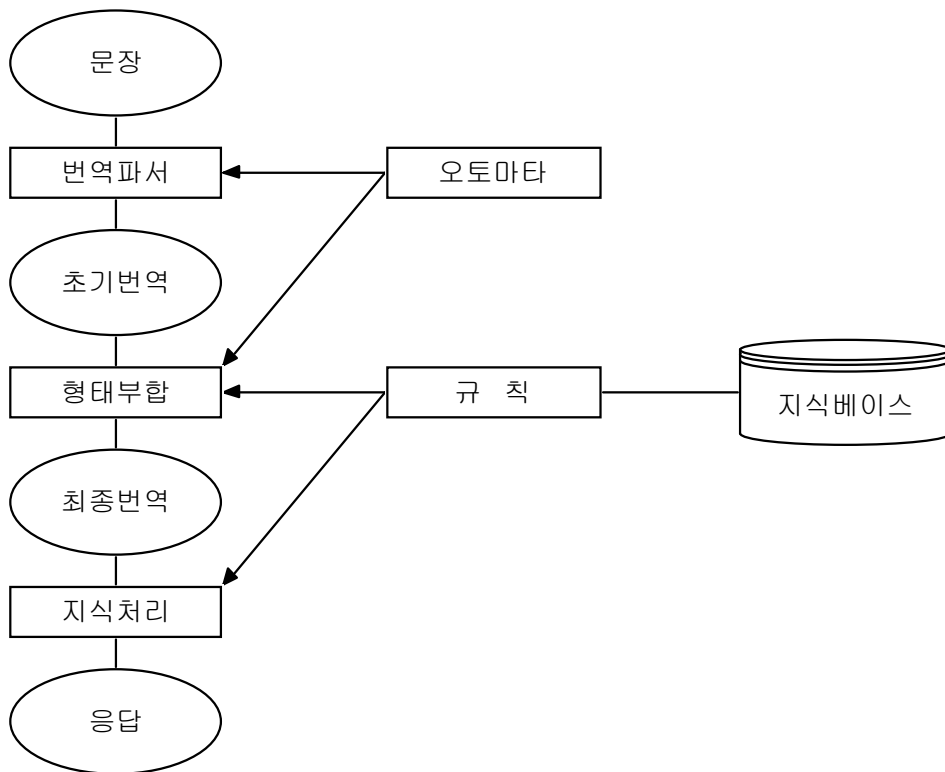


그림2. 질의 처리 흐름도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번역하기 위하여 자동변환 시스템으로 입력 시키면 번역과서는 문법과 의미를 분석하여 초기 번역을 출력하는데 이때는 오토

마타로 구성된 규칙을 이용할 수 있다. 초기 번역된 결과로서 응답에 이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장과 응답의 애매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칙과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형태부합을 점검하거나 지식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 처리된 결과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번역의 결과로서 응답을 주게 된다.

子音과 母音의 결합으로 된 일본말 音節 소리와는 달리(따라서 일본말의 경우는 아래 진술되는 한글의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없음) 한글은 表音에 추가하여 받침을 통한 表意的 側面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쌍받침중 하나만을 발음하도록 한글 문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 쌍받침중 발음이 되는 자음은 그것 자체로는 마지막 音素 뿐이다. 그러므로 모음이 뒤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받침을 갖는 음절 다음소리가 자음이거나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라면 쌍받침이 나타내고자 하는 표의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音素가 숨겨져 있는 관계상 로마자化된 영문 표기로는 그 관계음절이 지닌 表意性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예를 들면 ‘無’를 나타내는 ‘없다’와 사람을 업을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載’의 뜻을 지닌 ‘업다’는 同一한 소리이며 그 로마자 영문표기도 兩者 모두 ‘Urpdah’로 되어 같은 소리를 내게 되므로 그 구분이 불가능할 듯 하지만, 그 구분이 상기 [그림1]의 지식베이스 3)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同一한 영문 로마자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철자상으로는 ‘없다’하는 뜻일 경우에는 ‘없다’로 그리고 ‘업다’의 뜻일 경우에는 ‘업다’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3) 이 경우는, 쌍받침중 母音앞에 있는 子音 音素가 뒤따르는 母音자리를 代位하는 리에존(liaison)현상 때문에, 관련 한글의 음절이 로마字化 되었을 때 쌍받침중 默音으로 되어 남아 있었던 (문법규칙상) 받침중의 한 音素의 소리를 알 수 있게 되어 그 음절이 지닌 表意(表音以外的)가 무엇이었던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됨.

Session 2

재래식 및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5.7.7 발효 문광부고시 2000-8)과 영어식 표기법에 의한 표기사례와 그 발음 정확성 대비

표기사례 (地名/ 人名 등)	25개 표기사례에 대한 각 안별 로마자 표기 및 그 발음 (○, ×는 발음정확도 표시)				
	M-R 안('39~) (문교부고시 84-1과 동일)	구 문교부 안 ('59~'83)	문교부고시 84-1 ('84~2000.7.6)	문화관광부 고시 2000-8	영어식표기법 Prof. B. Kim's
경 기	Kyǒnggi 콩기(-가이) ×	Gyeonggi 가이온기(-가이) ×	Kyǒnggi 콩기(-가이) ×	Gyeonggi 가이온기(-가이) ×	Gyurngkee 경기 ○
덕 평	Tǒkp'yǒng 톡퓅 ×	Deogpyeong 도그파이웅 ×	Tǒkp'yǒng 톡퓅 ×	Deokpyeong 독파이웅 ×	Durkpyurng 덕평 ○
봉 천	Pongch'ǒn 퓅촌 ×	Bongcheon 봉촌 ×	Pongch'ǒn 퓅촌 ×	Bongcheon 봉촌 ×	Bongchurn 봉천 ○
장 흥	Changhǔng 챙흥 ×	Jangheung 쟁흥 ×	Changhǔng 챙흥 ×	Jangheung 쟁흥 ×	Jahnghung 장흥 ○
충 주	Ch'ungju 청(충)주 ×	Chungju 청(충)주 ×	Ch'ungju 청(충)주 ×	Chungju 청(충)주 ×	Choongjoo 충주 ○
태 백	T'aebaek 태백 ○	Taebaeg 태배그 ×	T'aebaek 태백 ○	Taebaek ※ 태백 ⊗	Taebaek 태백 ○
신 림	Shillim של림 ×	Sinlim 신림 ×	Shillim של림 ×	Sillim ※ 실림 ⊗	Sillim 실림 ○
백 암	Paegam 패갸 ×	Baegam 배갸 ×	Paegam 패갸 ×	Baekam 배갸 ×	Baegahm 백암 ○
금강산	Kum Kang San 큼깁싼 ×	Geum Gang San 줍깁싼 ×	Kum Kang San 큼깁싼 ×	Geum Gang San 줍깁싼 ×	Gum Gahnng Sahn 금강산 ○
이성계	I Sǒng Kye 아이송카이 ×	I Seong Gye 아이송가이 ×	I Sǒng Kye 아이송카이 ×	I Seong Gye 아이송가이 ×	Yee Surng Gye 이성계 ○
거북선	Kǒ Puk Sǒn 코우퓅손 ×	Geo Bug Seon 조브그손 ×	Kǒ Puk Sǒn 코우퓅손 ×	Geo Buk Seon 조북손 ×	Gur Book Surn 거북선 ○
독 도	Tok To 톡투 ×	Dog Do 도그두 ×	Tok To 톡투 ×	Dok Do 독두 ×	Dok Doh 독도 ○
강 (姜)	Kang 썩 ×	Gang 갱 ×	Kang 썩 ×	Gang 갱 ×	Gahnng 강 ○
곽 (郭)	Kwak 껍 ×	Gwak 껍 ×	Kwak 껍 ×	Gwak 껍 ×	Gwahk 곽 ○
김 (金)	Kim 킴 ○	Gim 집 ×	Kim 킴 ○	Gim 집 ×	Kim 킴 ○
이 (李)	Ri 라이 ×	Ri 라이 ×	Ri 라이 ×	I 아이 ×	Yee/Ree 이/리 ○
박 (朴)	Pak 팍 ×	Bag 배그 ×	Pak 팍 ×	Bak 백 ×	Bahk 박 ○
방 (方)	Pang 팡 ×	Bang 뱅 ×	Pang 팡 ×	Bang 뱅 ×	Bahnng 방 ○
윤 (尹)	Yun 이은 ×	Yun 이은 ×	Yun 이은 ×	Yun 이은 ×	Yoon 윤 ○
장 (張)	Chang 창 ×	Jang 쟁 ×	Chang 창 ×	Jang 쟁 ×	Jahnng 장 ○
전 (全)	Chǒn 촌 ×	Jeon 존 ×	Chǒn 촌 ×	Jeon 존 ×	Jurn 전 ○
정 (鄭)	Chǒng 총 ×	Jeong 종 ×	Chǒng 총 ×	Jeong 종 ×	Jurng 정 ○
조 (趙)	Cho 초우 ×	Jo 조우 ×	Cho 초우 ×	Jo 조우 ×	Joh 조 ○
최 (崔)	Ch'oe 초우 ×	Choe 초우 ×	Ch'oe 초우 ×	Choe 초우 ×	Chweh 최 ○
황 (黃)	Hwang 행 ×	Hwang 행 ×	Hwang 행 ×	Hwang 행 ×	Hwahng 황 ○
평 가	25개중 맞는 것 2개	25개중 맞는 것 0개	25개중 맞는 것 2개	25개중 맞는 것 2개(?)	25개중 맞는 것 25개 (모두 맞춤)

※⊗ : 현행 표기법상 학문이 아닌 경우는 맞고, 학문일 경우에는 철자를 따라 적어야 하는 것(轉字法)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됨.

그나마 2개 맞는 것도 결국은 우리말영어식(로마자)표기학회(김복문교수개발)의 7종성과 설측음화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임.

▣KBS1 시사프로그램 취재파일4321

‘햇갈리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

방영일시 : 제599회 한글날 (2005. 10. 9, 22:20)

취재기자 : 김민철

***오프닝멘트:**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인명을 말할 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개정된 이 로마자 표기⁴⁾를 영어권 외국인이 읽을 때 한국어 원음과 너무 동떨어지게 발음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을 웬만한 외국인이면 읽을 수 있는 영어 사용의 현실을 반영해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59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민철 기자:**

서울의 명소로 등장한 청계천, 구경 인파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자랑거리를 소개한 영어 안내 표지석에서는 청계천을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Cheong Gye Cheon 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로마자로 표기된 청계천을 어떻게 발음할까, 상당수가 청계천의 ‘청’을 ‘총(치용)’ 으로, 발음하고 ‘계’를 ‘가이’나 ‘기’로 발음하는 등 원음과 크게 다릅니다. 다른 단어들의 발음도 정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물어보니 몇몇 단어는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로마자표기법을 따라 읽은

4) 2000년 7월 7일 시행 문광부 고시 2000-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것이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된 단어의 한글 발음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 (미국인/한국 2년 거주):**

“제가 한글을 배울 때 사전 등을 보며 발음하면 항상 틀려서 주위 분들이 교정해 줬어요. 그 뒤 제가 한국어를 발음하고 읽는 법을 배운 후에는 훨씬 쉽게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철 기자 :**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 대학생들, 일정수준 이상의 로마자 해독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이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캇 피셔 (성신여대/영어영문학과 강사) :**

한국의 대학에서 2년째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스캇 피셔 씨.

피셔 씨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로마자 표기가 두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부터 쓰고 있는 현행 표기법, 하나는 그 전의 표기법⁵⁾입니다.

“(새표기법으로) 바뀐 다음에 관광객이나 한국에 온 사람이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관광 책자, 지도, 약도에는 지명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뭐가 옛날식인지 뭐가 새로운 것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 때부터(두가지를) 같이 적기로 했어요.”

***김민철 기자 :**

피셔씨 자신도 한국관련 논문을 쓸 때 남한에서 사용중인 현행과 종전 로마자 표기법, 그리고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까지 섞인 글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편했답니다.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현행 표기법이 실제 우리 발

5) M/R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을 일명 학술원 안이라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문교부 고시 84-1로 그 이름만 바꿈.

음과 크게 달라 오해를 부를 때가 많다고 피셔씨는 말합니다.

***스캇 피셔 (성신여대/영어영문학과 강사) :**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Gang Nam’이에요. 옛날식은 Kang Nam으로 써서 실제로는 그 발음이 ‘캠 냐’ 이 되지만 사람들이 ‘Kang’ 을 보면 보통 ‘강’ 이라고 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강남’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표기가 G로 시작하여 Gang 으로 되니까 영어사용 원어민들은 그걸 보면 ‘강’ 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갱’ 으로 생각해서 ‘갱냐’, ‘갱냐’이면 무슨 ‘갱’⁶⁾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곳에 가면 깡패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메일을 보면 영국 이메일, 호주,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이메일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불만이) 나와요.”

***김민철 기자:**

종전 로마자 표기법은 지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거센 소리 표시를 위한 어긋점이나 일부 모음 발음 표시를 위한 반달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부호들은 컴퓨터에서 사용이 어렵고 대다수 국민들이 쓰기 불편해 기존의 표기법을 따르지 않자, 지난 2000년 새 표기법으로 고친 것입니다.

***김세중(국립국어원/국어생활부장) :**

“표기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⁷⁾ 널리 쓸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예 쓰기가 어려운 그런 표기법은 표기법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국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쉽고 간편하게⁸⁾ 특히 기계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기법으로 바뀌야겠다...”

6) 폭력단이라는 뜻.

7) 로마자 표기법의 수요자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입을 망각하고 있음.

8) 국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쉽고 간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글 말소리값을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임.

***김민철 기자 :**

지난 2000년 표기법 개정 당시 여섯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았던 유만근 교수, 유 교수는 당시 표기법 개정 과정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만근(성균관대/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

“좋은 안을 낼 수가 있을까? 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마냥 길게 끌고 만 갈 수는 없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른 해결이 안 나면 시간에 쫓기는 점도 있고 해서 그 선에서 거수, 종다수 표결로 빨리 빨리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

***김민철 기자 :**

특히 인터넷 보급과 함께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는 영어 사용의 현실을 외면해 국제성이 퇴보했다고 유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만근(성균관대/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

“‘인천’의 표기를 ‘eo’가 들어가도록 하는 ‘Incheon’으로 표기하여 그 발음이 ‘인촌’이 되게 하였을 때 **이미 우리 표기법은 국제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제성이 모자란다는 건, 가량 ‘어’ 를 eo 로 했다는 거, ‘으’ 를 eu로 했다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자음의 경우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우리말 자음체계처럼 불, 풀, 꿀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뜻 구별하는데 쓰이는 언어가 많습니다. 영연방이었던 아시아 나라의 말이 로마자로 돼 있으면 참고가 될 만하죠. 그런데 그런걸 안했습니다.”

***김민철 기자 :**

하지만 현재 국립국어원은 굳이 영어권의 발음현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마다 발음방식이 제각각인데 영어권만 고려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섭니까?.

***김세중(국립국어원/국어생활부장) :**

“**발음의 문제**는 읽는 사람이 이것이 한국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주변사람들에게 물어서 배우거나 책을 통해서 배워서** 읽어야지 그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김민철 기자 :**

다시 말해 국어원은 로마자 표기법의 보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별도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한국 자모를 직접 배우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장항실(고려대/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수) :**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건 우리 한글 자모를 모를 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면 드러와서 바로 자모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모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실제로 하나씩 배우고 따라 읽고 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진 않죠.”

***김민철 기자 :**

학계에서는 우리의 표기법을 각 나라에 보급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효과적인 로마자 표기법의 확산을 위해 일부 수행해 갈수록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영어의 발음 행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병선(전주대/영미언어문화전공 교수) :**

“국어를 로마자 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는 목적은 로마자를 자국어의 표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이

있지만, 그것을 로마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식대로 한글의 자모를 로마자 자모로만 바꿔서 표기를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아무도 읽지 못하는 추상적인 로마자 표기법이 될 것입니다.”

***이응백(서울대/국어학과 명예교수) :**

“세계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없어, 지금은 영어가 국제적인 것이 되었으니, 바로 세계 공통적인건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해 할 수 있는 외국국민이 읽어서 분명한 한국어가 되게 하려면 영어식 철자 표기를 해야 해요.”

***김민철 기자 :**

10여 년간 무역진흥공사에서 일하며 세계 50여개 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만나온 김 복문 교수. 외국인들과 의사소통 할 때마다 정확히 발음이 안되는 우리말 표기법 때문에 불편이 많았다는 김교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기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복문(충북대/명예교수) :**

“‘치약’을 현행 표기법식으로 Chi Yak 으로, 또 하나는 자신이 개발한 올바른 우리말의 영문 표기인 Chee Yahk으로 써서 영미인들에게 이 두가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발음을 시켰을 때, ‘Chi Yak’의 경우 영어를 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 ‘차이·이액’이라 발음하지 ‘치약’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Chee Yahk’ 으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영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정확히 ‘치약’ 으로 발음을 합니다. 독일어 하는 사람, 불어 하는 사람, 심지어 일본어 하는 사람까지도 영어식 표기라면 대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어 다 알아요. 기준이 분명해야지, 세계어에 동일한 음가를 지니고 공통으로 통하는 로마자란 없어요.”

***김민철 기자 :**

개정 5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내외국인의 실제 발음이 표기법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국립국어연구원측이 조사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외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데 있어 로마자 표기법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만근(성균관대/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

“현행 로마자 표기법, 이걸 한국사람들 끼리만 통하게 해 봤으니까 그렇지요. 백을 배워야 되는데 70은 이미 알고 있는데다가 30만 가르치면 쉽죠. 그런데 백을 가르치는데 30만 알고 있고 70을 새로 가르치려면 힘만들고 배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클로징멘트 :**

전세계에서 영어를 모국어나 제2국어로 쓰는 나라는 180여개 국 가운데 백개 국이 넘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무역은 물론 학문, 과학 기술 등 대부분의 국제교류에서 영어는 이제 지구촌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5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실제 발음 현실과 동떨어진 로마자 표기법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 끼리만 통하게 만든 로마자 표기법이 한글의 세계화에 어울리는 것인지, 영어 사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지만 자칫 잘못된 로마자 표기법이 한글의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글날 559돌을 맞아 곱씹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2000-8)의 국제표준화기구(ISO) 제시지침 준수여부와 **각국 로마자 표기법과 우리말 영어식 표기법의 국제경쟁력 대비**

① 日本語 로마자 표기법 (훈령식)	② 中國語 Pinyin(漢語拼音) 로마자 표기체계	韓國語	
		③-1 현행 정부 로마자표기법 (문광부고시2000-8)	③-2 모의(模擬) 발음 부호법 입각 英語式로마자표기법

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각국에 시달한 로마자표기 관련지침

1) 정확한 소리값 옮김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침 1)			
100% 준수 (○)	100% 준수 (○)	불 준수 (×)	100% 준수 (○)
2) 1음절 대 1음절 대응으로 기사용 음절 표기단위의 중복사용 금지 (ISO 지침 2)			
100% 준수 (○)	100% 준수 (○)	불 준수 (×)	100% 준수 (○)
3) 음표부호 사용금지 (ISO지침 3)			
준수 (○)	준수 (○)	준 수(○)	준 수(○)
4) 기계화 자동호환성 구현을 통한 원 철자의 회복 실현 (ISO지침 4)			
100% 준수 (○)	100% 준수 (○)	불 준수 (×)	100% 준수 (○)

2. 다방면 로마자 표기법 적용분야에서의 그 실제적 수요충족 여부

1) 올바른 성명, 지명(地名), 역명(驛名), 상사명, 관광명소 등 표기			
100% 충족 (○)	100% 충족 (○)	불가능, 불충족 (×)	100% 충족 (○)
2) 초·중·고·대학생, 영어담당교사, 외국인, 해외교포2세의 한국어로마자표기 습득용			
100% 충족 (○)	100% 충족 (○)	불가능, 불충족 (×)	100% 충족 (○)
3) 무역·투자 유관업계의 능률향상 및 행정관청, 광고업계의 한국어로마자표기 참고용			
100% 충족 (○)	100% 충족 (○)	불가능, 불충족 (×)	100% 충족 (○)
4) 국어 및 국한(國漢) 및 한영(韓英)사전 등에 실려 있는 수천 만개 우리말 낱말에 대한 정확한 로마자 영문발음 표기 및 방대한 인터넷정보 검색시, 일관통일된 원칙의 合理的인 로마자 표기법 사용 가능			
100% 충족 (○)	100% 충족 (○)	불가능, 불충족 (×)	100% 충족 (○)
5) 국내외 학자들의 체계적인 韓國學(Koreanology)의 발전 및 연구를 위한 필수자료용			
100% 충족 (○)	100% 충족 (○)	불가능, 불충족 (×)	100% 충족 (○)

※ 총괄: 일본, 중국,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 국제경쟁력 대비			
① 日本 (100%보유)	② 中國 (100%보유)	③-1 韓國 (거의全無-0%상태)	③-2 韓國 (100%보유)

우리말의 올바른 영어식 표기

李 應 百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은 30년 동안에 세 번이나 바뀌었다. 1차가 구문교부안(한글학회안, 1959. 9~1983. 12)이며, 2차가 문교부 고시 84-1(학술원안, 1984. 1~2000. 6)이고, 3차가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인 문광부 고시 2000-8이다.

2차는 M·R(맥퀸 라이샤워)안으로 그런대로 통용이 되었으나, 현행 것은 2차 교체시 폐기되었던 한글학회안을 되살린 것으로, 세계어인 영어에 친숙한 외국인이 금강산(Geum Gang San)을 [쑤강산], 거북선(Geo Buk Seon)을 [쑤복선], 이성계(I Seong Gye)를 [아이송가이]로, 인천(In Cheon)을 [인쑤], 청주(Cheong Ju)를 [쑤쑤]로 읽어 대화나 전화가 통하기 어렵게 돼 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던 우리 경제가 12위권으로 밀리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이 일본이나 중국 기타 지역으로 방향을 돌려 그쪽의 경제만 돕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국내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읽을 때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것은 외국인에게 실험도 해보지 않고 국내인의 취향에 맞추었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은 의사 소통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말은 세계 어느 나라말보다도 모음이 많아 21개나 쓰이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세밀한 발음기호 구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표기에 로마자 표기가 따로 필요 없고,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음과 자음이 가장 풍부한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세계어인 영어의 철자(綴字)에서 우리말 발음에 알맞은 철자를 찾아낸 인사가 영어에 능통하고 독·불어에도 조예가 깊은 충북대 명예 교수인 김복문(金福文) 교수다.

가령 A의 영어 발음은 [아, 애, 어, 으...]등 다양한데, [아]로 고정시킨 철자는 A에 h를 더한 ‘Ah’ 다. 마찬가지로 ㄴ은 ‘ur’ ㄷ은 ‘oo’, ㄷ가 첫음절이 될 때는 머리에 반모음 w를 추가한다. ㅡ는 ‘uh’ ㅣ는 ‘ee’ 임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써 찾아낸 영어식 표기로 표기한 것과 현행 방식으로 표기한 우리말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영어계 외국인에게 읽혔더니 현행 것으로는 위에서와 같이 우리말이 전혀 안됐지만, 김복문 교수가 개발한 영어발음 기준의 모의(模擬) 발음부호법으로 마련된 표기로는 정확한 우리말 발음이 100% 된 실증적 테입이 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를 김복문 교수 개발의 영어식 표기로 대체할 때, 추락했던 우리의 경제가 눈부시게 회복되리라고 여겨진다.

結 論 2

서울大 總同窓會 冠岳大賞(2003/2004) 피추천자(수상후보)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內容

추천부문	영 광					
후보자	성명	김복문	직위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생년월일	1931년 6월 18일		성별	남	졸업년도	문리대51
추천자	성명	이응백	직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 력 및 경 력	195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입학				
	1953	미국 미조리주립대학 경제학과 편입				
	1955	미국 미조리주립대학 경제학과 졸업				
	1956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1957	상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이수				
	1966~1979	KOTRA 미국LA 무역관장,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무역관장 역임				
	1991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1993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역임				
	1996	우리말 영어식(로마자)표기학회 회장				
	1968	대통령표창 (수출유공)				
1995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공 적	1. 우리말 음절의 구성과 음운조직에 맞는 로마자 표기법 관련 완벽한 이론체계 확립.					
	미청산된 일제잔재 로마자 표기법의 청산과 우리말 로마자					
	2. 표기법의 일제방식으로부터의 독립, 주체성 회복과 함께 다 양한 음가를 지닌 한글이 갖는 표음문자로서의 세계적 우수 성과 과학성 입증					
	3. 남북한을 말론하고 국내외 만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일 람표 형식으로 된 로마자 표기법 완성으로 한국의 人·地名 의 정확한 통일적 표기와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함.					
4. 우리 역사나 문화재속에 담겨있는 잘못된 일제잔재 표기방 식 답습으로 나오는 엉뚱한 우리나라 人·地名의 발음을 정 확한 로마자 표기방식을 통해 그 발음들이 제대로 될 수 있 게 함으로서 국제고려학 또는 한국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						

結論 3

일터마련, 민생고 해결과 경제살리기의 근본·구조적 제도상의 돌파구는

日帝의 한국식민지 통치시대의 치욕적 遺制(한글학회안 1959~1983/84와 M/R안 1937~현재)와 同一 근간의, 이른바 文化五賊들의 사전각본에 따른 음모가 주효한 끝에 생긴, 세계화시대, 국제경쟁력이 全無, 0%인 亡國的 엉터리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광부고시 제2000-8호)의 폐기와 그 代案인 우리말과 비슷한 음절의 구성과 음운 조직을 지닌

영어발음기준, 모의(模擬)발음부호법 이론 立脚의

- ①정확하고(Correct), ②실용적이며(Practical),
- ③전후일관된(Consistent), ④종합적이고(Comprehensive),
- ⑤논리 정연한(Theoretical), 그리고
- ⑥南北共用 통일적인(Unified)

올바른 우리말 영문표기의 즉각적인 채택시행을 통해

우리말 소리값이 국제 경제 문화 등 여러 교류 면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고립화를 면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100% 확보하고, 國漢혼용의 회복을 통한 漢字사용 동양문화권으로의 조속한 복귀 뿐임!



(백두산 천지)

무역출판사

(Tel: 02)777-3315, Fax: 778-7009, Email: bmkim2439@hanmail.net)

한글의 世界化 : 方案 및 實例

전광진(全廣鎭)
jeonkj@skku.edu
성균관대 중문학과 교수
조선일보 생활한자 필자

[1]

우리 한민족의 거족적(學族的) 긍지가운데 하나는 ‘한글’이라는 뛰어난 서사체계(書寫體系, writing system)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글’을 창안한 세종대왕과 당시 집현전 학사들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사체계, 즉 문자가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본다면 그것은 크게 그릇된 생각이다. 이 지구상의 민족을 분류하거나 규정함에 있어서,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가?’는 참고 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이고 표징적(標徵的)인 잣대는 되지 못한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언어학적 잣대와는 달리 문자학적 기준은 매우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본다면, ‘한글’이 ‘한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속 좁은 생각임을 알 수 있다. ‘한글’이 ‘한민족’만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에는 본의와 상관없이 한글을 모독하는 셈이 된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애지중지(愛之重之) 키워온 딸이 ‘아까워서’(?) 시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한글’이 ‘한국어’만을 위해서 쓰이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을 ‘한글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한글에 대한 ‘참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글에 대한 사랑을 너무 좁은 데에서만 찾은 것은 아닌지, 자성(自省)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專用’이란 국어 단어를 ‘전용’이라고만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한글 사랑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까? 그것이 한글 사랑이라면, ‘exclusive use’를 ‘익스클루시브 유스’라 쓰는 것이 한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한글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사랑, 즉 ‘참 사랑’은 한글이 한반도를 뛰어 넘어 ‘세계’라는 넓은 세상에서 활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한 문자의 창안이 본래는 특정 언어를 위한 것이었음은, 세계의 모든 문자나 자모의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창안된 이후에는 그 언어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서사(書寫)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언어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문자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문자의 적응성(adaptability)에 의하여 우수성이 가능되어야 비로소 객관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 워싱턴 대학 J. Norman 교수의 저작 『중국어

학 총론』(부제: 중국어, 그 실체를 밝힌다) 제3장 제7절(중국문자의 적합성)을 번역할 때 (1991년 경), “알파벳으로 서사하는 것은 어떠한 언어들의 경우에도 쉽사리 적용될 수 있다. 라틴자모는 각기 다른 수백 종의 언어를 적는 데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키릴자모(Cyrillic alphabet)와 아라비아 문자도 수종의 언어들을 서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구절을 보고는, 한글이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서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우수성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 이후로 문자가 없는 민족들의 언어에 적용할 한글 서사법 개발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이 지구상의 종족(민족)과 언어의 수는 수 천 종에 달하지만, 문자의 수는 백 종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문자를 여러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지만, 어떠한 문자나 서사체계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른바 ‘무문(無文) 민족’도 수백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한글’을 통하여 이러한 문맹 민족들의 눈을 뜨게 하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글에 대한 ‘참사랑’일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저승에 계신 세종대왕께서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실까!

[2]

이 지구상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 世宗大王賞) 제정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제의를 하였던 일이다. 1989년 6월에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제의를 수용하여 1990년부터 해마다 문맹퇴치의 날인 9월 8일에 그 상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는 입안조차 된 바 없었으니, 특히 세종대왕의 깊은 뜻을 아직도 이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3]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국가라는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다(多)민족-다(多)언어’ 국가이다. 즉 56개 민족이 5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56개 민족- 56종 언어”설은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편의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수는 56종을 훨씬 능가한다.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고산족(高山族)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12개 종족을 통칭한 것임에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한 수 치이기 때문이다(高山族은 ‘14종 언어-민족’을 통칭한 것이라는 설도 있음). 그리고 정부로부터 별도의 한 민족으로 공인 받지는 못하였지만 언어학적으로는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 집단도 많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약 80여종에 달하는 셈이다.

어쨌든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중국의 정부 수립(1949년) 초기에만 해도 유문(有文) 민족의 수는 18개에 불과하였고, 무문(無文) 민족의 수는 37개나 되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수립과 더불어 소수민족에 대한 유화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 그 일환으로 문자가 있어도 활용도가 낮고 기능이 부실한 경우에는 문자 개혁을,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창(新創) 문자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에는 64%에 달하는 34개 민족이 문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에 해당되는 21개 민족은 아직도 문자가

없는 민족적 문맹(文盲) 상태로 남아 있다.

중국 내 소수민족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혈통인 “조선족”(朝鮮族)은 문맹률이 가장 낮고 문화 정도가 가장 높은 민족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글’이라는 우수한 서사체계 때문으로 보는 것이 중국학계의 통설이다(참고, 戴慶厦 등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 雲南民族出版社, 1999, 209쪽). 그래서 21개 무문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글 보급 방안에 대해서도 시험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해왔다.

[4]

현재 중국 국경 내에 분포되어 있는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무문 민족은, 누족[怒]·동향족[東鄉]·마오난족[毛難]·무람족[佤]·보안족[保安]·사랄족[撒拉]·스족[畚]·오로첸족[鄂倫春]·유구르족[裕固]·치양족[羌]·프리미족[普米]·허전족[赫哲]·회족[回]·브랑족[布朗]·아창족[阿昌]·에반키족[鄂溫克]·로바족[珞巴]·먼바족[門巴]·병룡족[崩龍]·타지크족[塔吉克]·고산족[高山], 이상 21개(38%)에 달하고 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별도의 고유 문자가 없다는 의미이지 어떤 종류의 문자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어 통용력과 한자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다면 새로운 서사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예는 14개 민족(누족[怒]·동향족[東鄉]·마오난족[毛難]·무람족[佤]·보안족[保安]·사랄족[撒拉]·스족[畚]·오로첸족[鄂倫春]·유구르족[裕固]·치양족[羌]·프리미족[普米]·허전족[赫哲]·회족[回]·고산족[高山])이 있다.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의 문자도 아울러 통용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브랑족[布朗]과 아창족[阿昌]은 다이문자(傣文)를, 에반키족[鄂溫克]은 몽골자모(蒙古文)를 곁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족(漢族)의 문자인 한자보다는 다른 소수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다음 4개 민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민족은 자기들만을 위한 새로운 서사체계에 대한 회구도(希求度)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 로바족 [珞巴] : 티베트문자(藏文)
- 먼바족 [門巴] : 티베트문자(藏文)
- 병룡족 [崩龍] : 다이문자(傣文)
- 타지크족[塔吉克] : 위구르문자

이상 네 민족 가운데, 병룡족을 제외한 세 민족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글 보급의 1차 대상으로 삼을 만할 것이다.

[5]

로바(Lhoba, 珞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히말라야산맥 동부 남녘의 광대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민족 전체 인구는 2~30만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인도 지역에 살고 있고, 중국 국경 내에 살고 있는 인구는 1995년 현재 2,322명이라 한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데, 농한기에는 수렵 생활을 겸한다. 종교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다.

로바족 전설에 따르면 그들 자신을 “태양의 자손”이라 부른다고 한다. 로바족을 티베트말

로는 “남방인”(南方人)을 뜻하는 łopa라 칭한다. 중국어 명칭에 사용되는 “珞巴”는 그것을 음역한 것이다. 자칭(自稱) 명칭으로는 bokar(博嘎爾)·bəŋni(崩尼)·eulon(蘇龍) 등이 있다. 그들의 언어는 한장어족(Sino-Tibetan Language Family)의 티베트-미얀마(藏緬)어계에 속한다. 1976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된 로바어는 보깔방언, 멩니방언, 미꾸바(따무)방언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보깔말을 표준방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방언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그 음소는 다음과 같다.

(1) 머리자음(22개)

p	pj	b	bj	m	mj	w
t		d		n		l r
te		dz		ŋ		ε j
tʂ						
k		g		ŋ		
						f(h)

(2) 꼬리자음(7개) p·m·t·n·r·k·ŋ

(3) 단 모 음(7개) i·e·a·o·u·w·ə
(장음을 포함하면 모음은 총 14개임)

(4) 겹 모 음(3개) ei·iu·əu

[6]

로바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였다. 첫째, 대응 한글 자모의 선정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 셋째, 보조 기호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이러한 원칙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필자가 구상한 ‘로바어-한글 서사법’(JLH System : ‘로바어 한글 표기법’이라 하면 언어 서사(書寫)의 주요 수단이 아니라 발음 표기(表記)에 활용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음. 따라서 ‘표기법’ 대신에 ‘서사법’(書寫法 writing system)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영문 표기(JLH System)는 ‘Jeon Kwang Jin’s Lhoba-Hangül writing system’을 약칭한 것임)은 다음과 같다.

<1> 머리자음(22개)

1) 일반 자음(15개)

p [ㅍ]	t [ㅌ]	k [ㄱ]
b [ㅂ]	d [ㄷ]	g [ㄱ]
m [ㅁ]	n [ㄴ]	l [ㄹ]
te [ㅈ]	dz [ㅉ]	ε [ㅅ]
tʂ [ㅊ]	ŋ [ㅇ]	f(h) [ㅎ]

[보충설명]

① te와 ε가 “i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각각 ts 와 s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ㅈ]과 [ㅅ]으로 표기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 ② tʃ [츠] : 자음 tʃ는 “티베트 차용어의 머리자음에만 출현된다. 발음할 때舌尖 부분이 입천장 쪽으로 약간 들리지만 권축(捲縮)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tʃ 보다는 조음점이 약간 뒤쪽이다”고 하는데, 한글 [츠]으로 표기하는 것은 음운 유사성보다는 기존 자모를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어 한글서사체계에서의 /츠/은 [tʃ]이고, 한국어 서사체계에서의 /츠/은 [tʃ]임을 사전에 숙지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③ ɱ 을 [ㅇ]으로 표기할 경우 순수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머리자음 표기와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에 옛글의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특수 자음 (7개)

- (1) pj:(2) bj:(3) mj : 구개음화된 자음인데, 자음 뒤에 반모음 j가 첨가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각각 [ㅍ]·[비]·[미]로 전사(轉寫)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자모를 따로 만들어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예) ‘먼저(가다)’ pjɔŋ → [뵘옹]
- (4) ɲ도 위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여 [니]로 전사하기로 한다.
- 예) ‘바람’ ɲulɔŋ → [니우룽]
- (5) r에 대하여 별도의 자모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지는 먼저, 자음 l 과의 상보적 분포 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현지음을 당장 조사해볼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부득이 /ㄹ/의 변이음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 (6) w:(7) j : “반모음 w의 출현 빈도는 매우 적다. j의 마찰성은 비교적 약하고, i 앞에서는 ɲ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별도의 자모를 고안하지 않고 [우]·[이]로 표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꼬리자음(7개)

p [ㅍ] t [ㄷ] k [ㄱ]
 m [ㅁ] n [ㄴ] ŋ [ㅇ]
 r [ㄹ]

[보충설명]

- ① 꼬리자음 : -p-t-k를 머리자음과는 달리 [ㅍ]·[ㄷ]·[ㄱ]로 적은 것은 음성학적 자질보다는 컴퓨터 입력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결과이다. 즉 종성에서는 [ㄱ]만 입력이 가능하고, [ㅍ]과 [ㄷ]은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t을 [ㅌ]이 아니라 [ㄷ]으로 한 것은 [ㅍ] 및 [ㄱ]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 ② 꼬리자음 -r을 [ㄹ]로 적은 것은, 이것과 대립되는 -i이 없기 때문이다. 꼬리자음 /ㄹ/의 음가는 [l]이 아니라 [r]이라는 전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3> 홑 모 음(7개)

i [ㅣ] e [에] a [ㅏ]
 o [ㅓ] u [ㅜ] w [ㅡ] ə [ㅓ]

- 장모음의 경우에는 보조기호 [:]를 사용함(장음 표시는 국제 음성 기호 [ː]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컴퓨터 활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 자판의 [:]을 사용하기로 한다).

<4> 겹 모 음(3개)

ei [에이] iu [이우] əu [어우]

- 겹모음 iu를 [ɪɪ] 대신에 [이우]로 서사한 것은 다른 겹모음을 2음절로 서사한 것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상과 같은 ‘로바어 한글 서사법’에 활용된 한글 자모는 총 22개로, 자음이 15개이고 모음이 7개이다. 머리자음 15개 가운데 7개는 꼬리자음으로도 쓰인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2

머리자음 (15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	
모음 (7개)	ㅏ	ㅑ	ㅓ	ㅕ	ㅡ	ㅣ	ㅞ	
꼬리자음 (7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표> #3 : 운모(韻母)에 대한 서사 예시(例示)

	i [ㅣ]	e [ㅞ]	a [ㅏ]	o [ㅓ]	u [ㅕ]	u [ㅡ]	ə [ㅞ]
-i [ㅣ]		ei 에이					
-u [ㅕ]	iu 이우						əu 어우
-r [ㄹ]	ir 일	er 엘	ar 알	or 울	ur 울	ur 을	ər 얼
-m [ㅁ]		em 엘	am 암	om 옴	um 옴		
-n [ㄴ]	in 인	en 엔					
-ŋ [ㅇ]	iŋ 잉	eŋ 엥	aŋ 앙	oŋ 옹	uŋ 웅	uŋ 웅	əŋ 엥
-p [ㅂ]		ep 엵	ap 얏	op 옵	up 옵		
-t [ㄷ]	it 인	et 엔					
-k [ㄱ]	ik 익	ek 엑	ak 악	ok 옥	uk 옥	uk 욱	ək 억

[7]

한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의 개발은 음소 대응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언어의 실제 문장에 적용시켜 서사해 보았을 때 그 진가(眞價)가 발휘될 수 있고, 그 완성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채집한 로바어 어료(語料) 가운데 임의로 10개의 문장을 선정하여 JLH System으로 서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goda: tapi: do: nuŋ da.
 고다: 따빠: 도: 능 다
 ‘소’ ‘풀’ ‘먹다’ ‘~ 싶어하다’ (尾助)

▶ 소가 풀을 먹고 싶어한다

- ② no: kom i dum dabo je
노: 꿈 이 듦 더보 이에
'당신' '그' '하다' '돕다' (尾助) (語助)
▶ 당신은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 ③ ko: le:kə i da fiə:?
꼬: 레:껴 이 다 히:
'그' '일' '하다' (尾助) (語助)
▶ 그는 일을 합니까?

- ④ abo me ake: do: dabo gok toka.
아보 메 아께: 도: 더보 곡 또까
'아빠' '밥' '먹다' (尾助) '부르다' (語助)
▶ 아빠더러 밥 잡수러 오시라고 하여라.

- ⑤ arə: me ŋo: lopdzon i dabo
아러: 메 오: 립중 이 더보
'내일' '나' '공부' '하다' (語助)
▶ 내일 나는 공부할 것이다.

- ⑥ əben idin kəŋ ge do: dabo je?
서벤 이딘 쟁 거 도: 더보 이에?
'들소' '고기' '삶다' '먹다' (尾助) (語助)
▶ 들소 고기는 삶아서 먹습니까?

- ⑦ no: o: tuŋ nuŋ da fiə:?
노: 오: 뚜ŋ 능 다 히:?
'당신' '술' '마시다' '싶다' (尾助)
▶ 당신은 술을 마시고 싶습니까?

- ⑧ ko: e: taŋ da pok da.
꼬: 세: 땅 다 뵁 다.
'그(사람)' '노래' '부르다' (尾助) '춤추다' (尾助)
▶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 ⑨ no: mukw tuŋ jo ka.
노: 무끄 뚜ŋ 이오 까.
'당신' '담배' '피우다' '말라' (語助)
▶ (당신) 담배 피우지 말라.

- ⑩ ᄒo: lopdzon i da.
 오: 룽쵡 이 다.
 ‘나는’ ‘공부’ ‘하다’ (尾助).
 ▶ 나는 공부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로바어 한글 서사법’에 의하여 적어 본 로바어와 그 의미를 도표로 요약하자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4

①	교다: 따빠: 도: 능 다. ▶ 소가 풀을 먹고 싶어한다.
②	노: 품 이 둠 더보 이에? ▶ 당신은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③	꼬: 레:꺼 이 다 허?: ▶ 그는 일을 합니까?
④	아보 메 아께: 도: 더보 꼭 또까. ▶ 아빠더러 밥 잡수러 오시라고 하여라.
⑤	아러: 메 오: 룽쵡 이 더보. ▶ 내일 나는 공부할 것이다.
⑥	서벤 이딘 쟁 거 도: 더보 이에? ▶ 들소 고기는 삶아서 먹습니까?
⑦	노: 오: 풍 능 다 허?: ▶ 당신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⑧	꼬: 세: 땅 다 찍 다. ▶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⑨	노: 므꼬 풍 이오 까. ▶ (당신) 담배 피우지 말라.
⑩	오: 룽쵡 이 다. ▶ 나는 공부 한다.

※ 로바어는 단음절 어휘가 많기 때문에 ‘2 바이트 뛰어쓰기’가 효율적인 것임.

이상과 같은 시험적인 활용을 통하여 로바어 한글 서사법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로 서사할 수 있다는 점, 보조 기호가 한 가지(장음 부호 [:])밖에 없어 매우 간단하다는 점, 이상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 셈이다. 22개 자모 가운데 머리자음으로 쓰이는 [°]만 옛글인데, 이것을 컴퓨터로 입력하자면 자판을 바꾸는 간단한 절차만 추가될 뿐이므로 큰 문제 거리는 아니다.

JLH System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해 보자면, 머리자음과 꼬리자음에 등장되는 /r/을 [ㄹ]로 서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머리자음에서는 /r/이 /l/과 더불어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형성할 경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꼬리자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음).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자음 /tʂ/를 [ㅈ]으로 서사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로바어에는 자음 /tʂ/가 없기에 서로 충돌될 가능성은 없다. JLH System은 총 36개 음소(머리자음 22, 꼬리자음 7, 모음 7)가운데 많게는 3개, 적게는 1개의 음소에 대한 서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로바어 한글 서사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97%(35/36)~92%(33/36)에 달하는 셈이 된다.

[8]

“로바어 한글 서사법”(JLH System)을 처음 고안한 것은 2002년 10월 23일이었다. 자음과 모음이 어찌면 그렇게 잘 대응되는지 큰 어려움 없이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그 기쁨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물론, 이것은 초별구이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로바어 한글 서사법을 창안한 내용이 담겨 있는 논문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발간된 『중국언어연구』(한국중국언어학회) 제15집(pp.195-228)에 발표되었다. 동 내용이 朝鮮日報(2003. 1. 29)와 東亞日報에 크게 보도되는 등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한글학회의 《한글새소식》(4월호)에도 발췌 소개되었다. 특히 2003년 1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중국어판을 본 중국인 독자(謝明根, 中國 廣東省 中山市 거주, 사회사업단체 상임고문)는 광둥지역의 기업가와 독지가들과 더불어 로바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인데, “로바어 한글서사법”은 “현실적 의의가 큰 창의적인 방안”이기에, “이것이 실행된다면 로바족의 문명 수준을 높이고, 韓中 문화 교류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는, 생산적이고도 유익한 결과”가 기대되므로, 그 프로그램의 명예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의 편지(2003년 9월 30일자)를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2005년 10월 28일 - 30에 중국 廈門대학(Xiamen University)에서 개최된 제38차 국제한장언어학회 학술회의(ICSTLL)에서 중문으로 발표되어 中國藏學研究所의 周煒 소장 등 중국인 학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제의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문제와 난관이 따를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경주(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요망 사항

- (1) 한글 세계화 전담 기구 신설 :
 - 1안 : 독립 기관 신설
 - 2안 : 국립 국어원 산하
 - 3안 : 세종 연구소 산하
- (2) 전 세계 무문(無文) 민족 언어 연구 기관 설립 및 연구 진흥.
- (3) 한글을 통한 전세계 문명 퇴치 운동 : 유엔(UNESCO)와 협의

【참고 문헌】

- 전광진(2001)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징」, 『중국문학연구』(한국중문학회) 제22집. pp.343-367.
- 전광진(2002) 「중국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연구』(한국중국언어학회) 제15집, pp.195-228.
- 전광진(2003) 「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중국언어연구』(한국중국언어학회) 제17집, pp.275 -317.
- 전광진(2003) 「한글의 세계화 : 로바어 한글 서사법」, 『한글 새소식』(한글학회) 제368호, pp.10-14.
- 전광진(2005) 「珞巴語韓文書寫法的擬定」, Xiamen University, 제38차 국제한장언어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10. 30.
- 戴慶厦(1999)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 雲南民族出版社.

【부록 2】 중국 소수민족의 문자 사용 현황

		固有	新創	無文	통용문자
1	고산족	[高山]		■	□
2	그로족	[佧佬]	●		□
3	긴족	[京]	●		□
4	나시족	[納西]	●	●57	
5	누족	[怒]		■	□
6	다우르족	[達斡爾]	●56		
7	다이족	[傣]	○(4종)		
8	동향족	[東鄉]		■	□
9	두롱족	[獨龍]	●83		
10	두옹족	[侗]	●58		
11	라후족	[拉祜]	○●	●57	
12	러시아족	[俄羅斯]	○▲		슬라브자모
13	로바족	[珞巴]		■	藏文
14	리수족	[傈僳]	○●(2종)	●57	
15	리이족	[黎]	●57		
16	마오난족	[毛難]		■	□
17	만주족	[滿]	●		□
18	마오족	[苗]	○●	●56(4종)	
19	먼바족	[門巴]		■	藏文
20	몽골족	[蒙古]	○★(2종)		
21	무람족	[佤]		■	□
22	바이족	[白]	●	●82	
23	바족	[佻]	○●	●57	
24	병롱족	[崩龍[德昂]]		■	傣文
25	보난족	[保安]		■	□
26	브랑족	[布朗]		■	□, 傣文
27	브위족	[布依]	●	●56	
28	사랄족	[撒拉]		■	□
29	수족	[水]	●		□
30	스족	[畲]		■	□
31	시바족	[錫伯]	○		
32	아창족	[阿昌]		■	□, 傣文
33	야오족	[瑤]	●	●83	
34	예반키족	[額溫克]		■	□, 蒙古文
35	오로첸족	[鄂倫春]		■	□
36	우즈베크족	[烏孜別克]	○▲		위그루문자
37	위구르족	[維吾爾]	○★		
38	유구르족	[裕固]		■	□
39	이족	[彝]	○	●56	
40	조선족	[朝鮮]	○★		
41	주양족	[壯]	●	●55	
42	지노족	[基諾]		●83	
43	징포족	[景頗]	○●	●57(載瓦)	
44	차양족	[羌]		■	□
45	카작족	[哈薩克]	○★		
46	키르키즈족	[柯爾克孜]	○		
47	타지크족	[塔吉克]		■	위그루문자
48	타타르족	[塔塔爾]	○▲		위그루문자, 카작문자
49	토가족	[土家]	●83		
50	토족	[土]	●83		
51	티베트족	[藏]	○★		
52	프리미족	[普米]		■	□
53	하니족	[哈尼]	●	●57	
54	허전족	[赫哲]		■	□
55	회족	[回]		■	□

※ 설명 ※

- : 固有 문자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예 : 17개 민족, 22개 문자
- ★ : 固有 문자가 현재에도 모든 용도에 완벽하게 쓰이고 있는 예 : 5개 민족
- : 전통 문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예 : 11개 민족
- : 固有 문자가 선교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 : 5개 민족
- ▲ : 固有 문자의 사용인구가 극히 적어 다른 문자를 통용하는 예 : 3개 민족
- : 新創 문자를 제정한 예 : 19개 민족 23종 문자
- : 문자가 없는 無文 민족 : 21개 민족
- : 민족 문자가 없어 漢字를 쓰고 있는 민족 : 20개 민족